
2016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 ANNUAL REPORT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2015
2016

Contents

I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비전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II 2016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 014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 016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018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 020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022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연구
- 024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 02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 시스템 구축
- 028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 030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
- 032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V)
- 034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 03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연구

- 038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 040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증진 방안
- 042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 044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 04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048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 연구(IV)
- 050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6
- 052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 054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 056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 058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 060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 06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수시연구

- 064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평가」 현장 적합성 제고 방안
- 06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 068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개편 방안 연구
- 070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07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마련 연구
- 074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 076 다문화유치원 실태 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 078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 080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 08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 연구

III 2016년 연구지원사업

주요행사

- 086 육아정책 심포지엄
- 087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
- 087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개최
- 088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육아선진화 포럼
- 089 국제세미나/간담회
- 090 협동연구 공동 정책세미나
- 090 제5차 CLFA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
- 091 학술대회
- 091 육아정책연구소 11주년 기념식 개최
- 092 전문가 간담회
- 094 업무 협약(MOU) 체결

주요 간행물

- 095 Issue Paper
- 097 육아정책연구
- 100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JCCEP)
- 102 육아정책포럼
- 104 육아정책 Brief
- 105 KICCE Policy Brief
- 105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IV 2017년 추진계획

2017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8 2017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9 중점연구사업

2017년 사업개요

- 111 기관고유사업
- 114 일반사업
- 116 2017년 연구사업 총괄표

2016년에는 영유아가 행복한 안전한 사회 환경의 구축과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육아지원 내실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육아정책의 발전을 위해 2005년에 설립된 이래 국가 영유아 정책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전반에 걸친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육아정책연구를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육아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였고, 국정과제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확대',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에 부합한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아버지 양육 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 등 25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는 물론 선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정부부처와 학계,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이슈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만날 수 있는 간담회와 포럼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포럼 등 다양한 간행물 발행과 함께, 온라인 Newsletter 서비스와 SNS 활동을 통해 국내외 육아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학술대회 등 연구과제 관련 학술대회 및 육아정책 주요 이슈별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학술연구 결과 발표와 교류·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새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8-2022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영유아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연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환경 조성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과 육아지원 방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육아지원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 해 연구에 주목하여 주시고, 올해 추진하는 연구과제와 각종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6
ANNUAL
REPORT**

I

연구소 소개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주요기능
비전
연혁
조직도
일반 현황

설립목적

PURPOSE OF ESTABLISHMENT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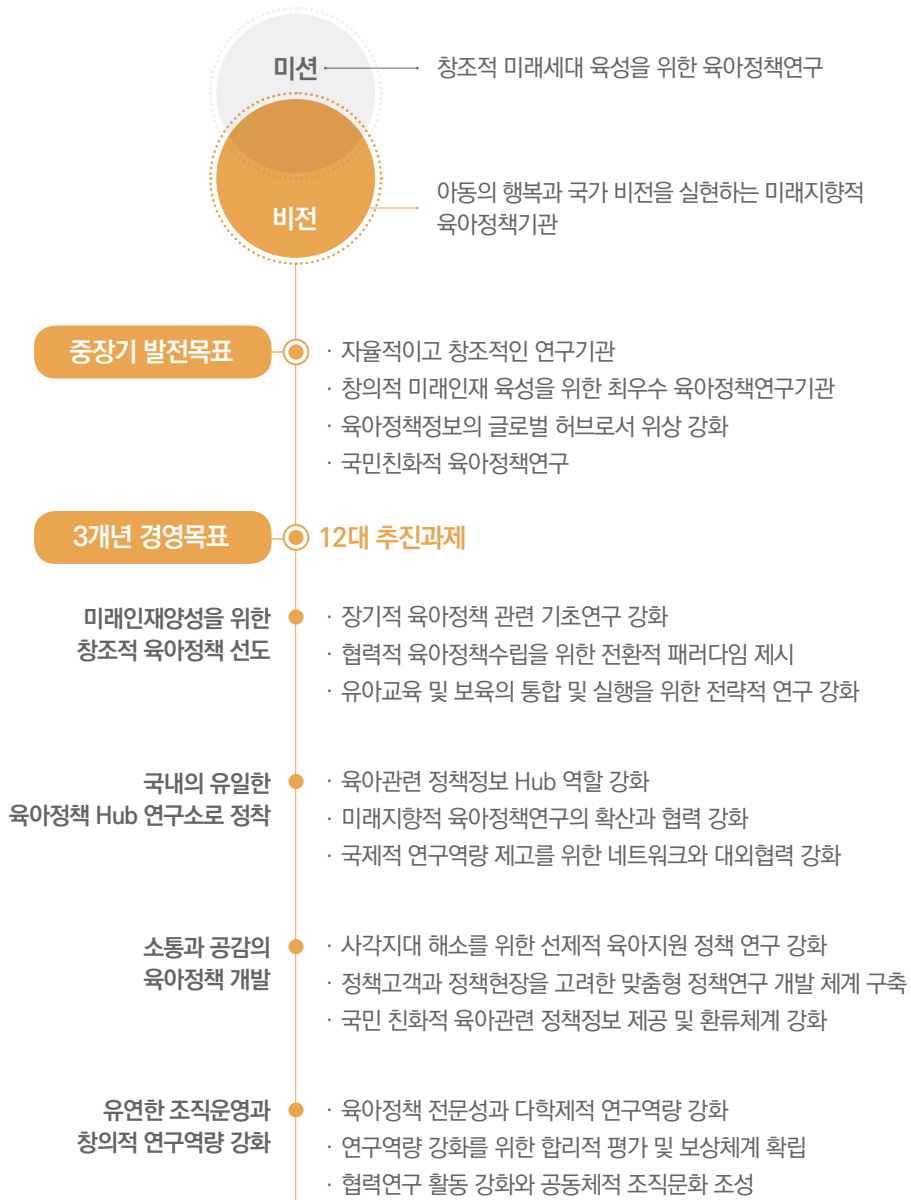
MAIN FUNCTION

- 1 육아정책 방안 연구
- 2 육아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 육아지원 기관의 평가 및 자문
- 4 육아지원 인력의 자격제도 관리 및 교육
- 5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자료의 공유 및 관리
- 6 육아정책 관련 국제 협동연구 및 교류 협력
- 7 정부의 육아정책사업 지원

비전

VISION

영유아와 가족이 행복한 육아선진국으로의 도약,
육아정책연구소가 창조적 육아정책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2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5

- 2005. 08. 17.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운영 방침 결정 (국무총리주재 제118차 회의)
- 2005. 09. 29.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관련 3개 연구기관 정관 개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공동부설센터)
- 2005. 09. 30.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5. 11. 09. 이옥 소장 선임
- 2005. 12. 26. 개소식
- 2005. 12. 28. 보건복지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업무 위탁

2006

- 2006. 12. 28.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업무 위탁

2008

- 2008. 09. 05.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관련
규정 개정으로 협력기관을 2개로 조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부설센터)
- 2008. 10. 31. 조복희 소장 선임

2009

- 2009. 12. 30.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
- 2009. 12. 30. 보건복지부 2개 사무국
업무 위탁 종료

2010~
2011

2010. 01. 2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선진화사업지원단 업무위탁
2011. 10. 31. 이영 소장 선임

2012~
2013

2012. 10. 26. 창립 7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2013. 11. 01. 창립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4

2014. 09. 17.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업무지원을 위한
'유보통합지원단' 발족
2014. 10. 31. 우남희 소장 선임

2015

2015. 02. 09. 서초동 외교센터로
청사 이전
2015. 12. 04. 육아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2016

2016. 11. 07 육아정책연구소
11주년 기념식 개최
2016. 11. 24. 제7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개최

조직도

ORGANIZATION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3실, 1지원단, 11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1본부, 3실, 1지원단, 11팀]



경영자문위원회

- 김병국 자문위원(고려대 정책대학원장)
- 김민철 자문위원(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김혜숙 자문위원(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민경찬 자문위원(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은기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순형 자문위원(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하연섭 자문위원(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하정훈 자문위원(하정훈소아과 원장)
- 황종규 자문위원(변호사, 한국모노레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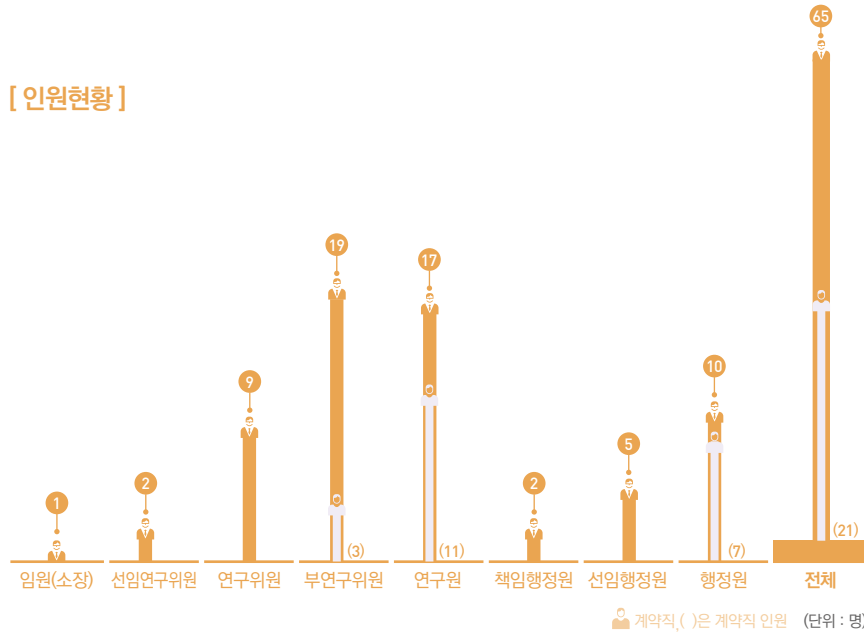
연구자문위원회

- 지성애 위원장(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 강상진 자문위원(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김영옥 자문위원(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 남기철 자문위원(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도현심 자문위원(이화여대 아동학과 교수)
- 서영숙 자문위원(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신동주 자문위원(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신성식 자문위원(중앙일보 논설위원, 복지전문기자)
- 이영 자문위원(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 이종희 자문위원(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일반현황 (2017. 04. 03 기준)

GENERAL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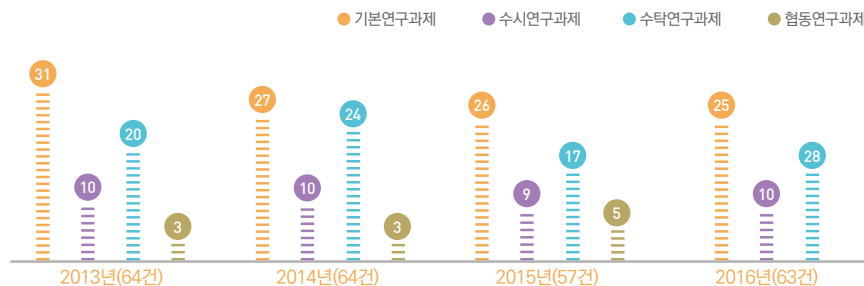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예산 (A)	%	2017 예산 (B)	%	증감(B-A)	%	
수입	정부출연금	6,819	77.8	6,779	82.4	△40	△0.5
	자체수입	1,544	17.6	1,262	15.3	△282	△3.2
	전기이월금	340	3.9	164	2.0	△176	△2.0
	연구개발적립금	62	0.7	18	0.2	△44	△0.5
합계	8,765	100.0	8,223	100.0	△542	△6.2	
지출	인건비	3,187	36.4	3,281	39.9	94	1.1
	연구사업비	4,278	48.8	3,812	46.4	△466	△5.3
	경상운영비	453	5.2	406	4.9	△47	△0.5
	시설비	783	8.9	702	8.5	△81	△0.9
	연구개발적립금	64	0.7	22	0.3	△42	△0.5
합계	8,765	100.0	8,223	100.0	△542	△6.2	

[연구현황] *연구시작일 기준

(단위: 건)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6
ANNUAL
REPORT**

II

2016년도 주요연구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수탁, 연구개발적립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일반연구
수시연구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권미경, 박원순,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가정 내 양육’을 기관 이용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를 기르는 일’로 정의하고, 양육지원 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녀를 기르는 일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된 가정 내 양육지원 요구를 검토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현황 및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함.
- 현장방문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통해 양육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수집함.
- 영유아 어머니 1,302명 대상 설문조사, 77명의 심층면담 자료 분석으로 자녀 양육현황과 다양한 가정 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가정 내 양육지원 이용 실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함.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실무협의회 개최로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의 지향점 및 방안을 구체화함.

연구결과

가정 내 양육 역량 평가

-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양육과정에 요구되는 돌봄역량, 지원역량, 양육정보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 등에 대해 그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나 부모 자신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며, 양육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영아 어머니의 체력 역량감이 떨어지고 신체적 부담이 높게 나타남.

양육지원 정책에의 개선 요구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용지원 상향조정 요구가 높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에의 요구가 높은 특징을 보임.



- 비용지원, 돌봄지원, 정보 및 교육제공, 물품지원, 건강지원, 종합서비스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누리과정 비용지원,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정책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돌봄지원 및 종합서비스지원 정책 중에는 인지 및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정책들이 있어 주요 원인 파악과 대응이 필요함.

양육지원 정책에의 평가

- 영유아 어머니는 정부가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이 갖고 있지만(2.6/4.0점), '정부가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현재보다 더 늘려가야 하며(3.1/4.0점)',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으로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2.5/4.0점)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필요도, 만족도, 개선필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비용지원'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은 돌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양육지원을 위해 정책 방향으로 '부모'에서 '영유아'로 지원 관점의 전환,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양육가치 회복, 함께 키워가는 육아문화 지향 등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추진 전략으로 생태체계적 접근, 중앙정부 기본계획 틀 고려,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택과 집중, 양육자 역량강화에 중점, 자발적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강조함.
- 현재 정책의 개선방안들과 더불어 국민홍보 강화로 정책인지도 개선을 제안하고, 영아가정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육아 서포터즈 제도 마련과 거점형 영아 양육지원 센터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 제시함.
- 접근성과 이용편리성 증진을 위해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 거점 설치, '양육 지원 요원' 주민센터 배치,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함.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양미선, 이규림, 김정민

배경 및 목적

-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추진 경과와 현황,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공급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개발 및 평가하여 향후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국내 선행연구, 관련법 및 제도 등을 고찰하고,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등을 재분석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구과 시도교육청 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 공립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연구결과

공보육 공급 정책 평가

- 적절성은 질적분석과 성과 평가를 실시함.
- 보편성은 공급률과 이용률, 취약보육 운영률과 이용률, 입소대기아동 비율 등을 산출하여 분석함.
- 효과성은 평가인증률, 1급 보육교사 비율,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용자 만족도 등을 산출하여 평가함.
- 효율성은 아동 1인당 확충 및 설치 예산과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를 비교 분석함.

공교육 공급 정책 평가

- 적절성은 질적분석과 성과 평가를 실시함.
- 보편성은 취업률, 돌봄교실 운영률, 1개원당 학급수를 제시함.
- 효과성은 평가참여율과 유치원 이용시간, 교직원 1인당 아동수, 학급당 원아수를 제시함.
- 효율성은 아동 1인당 교육여건 개선비, 인적자원, 급식관리, 기본적교육활동비 등의 공립과 사립 자료를 분석함.



공보육교육 공급 관련 의견 및 요구

-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47.1%가 부족하다는 의견임.
-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은 신축과 민간어린이집 전환이 각각 26.0%로 높고, 공공주택어린이집 전환 19.2%,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15.4% 순임.
- 세제 혜택 중 사업체 만족도가 높은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50.0%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8.1%,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21.9% 순임.
-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수단에서 보육수당을 삭제한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 70% 이상임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의 어려움으로 높은 선정기준이 44.4%, 낮은 인건비 및 운영비 25.9%, 운영관리 기준 11.1% 순임.
- 지역 내 공립유치원의 충분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28.6% 정도만 충분하다고 응답함.
- 공공형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의 70%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원장은 80% 정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정책 제언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추진함.
- 적정 공보육·교육 공급률을 산출함.
- 공보육·교육 우선 공급지역 기준을 마련함.
-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수립함.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최윤경, 박창현, 하연섭,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2014-2016년 유보통합 로드맵의 추진에도 향후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시화된 바가 없음. 현 시점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

연구방법

-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대상 집단면담조사(FGI)/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신문기사/인터넷 댓글 분석, 문헌고찰

연구결과

유아교육·보육 행·재정인력 현황

- 유아교육·보육 업무 속성이 취학전 아동 대상 보육·교육의 제공과 지원체계, 시설환경 관리로 이루어진 데에 큰 차이가 없음. 업무 내용상 한 부처로의 업무체계 통합이 가능함. 다만 중점을 두는 부분과 특징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살려 행정업무체계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교육부)에서 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7개 시도청의 자체예산으로 구성되고, 보육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예산과 기금이 약 6:4의 비율로 구성됨. 현재 보육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약 5:3:2의 비율을 가짐.

유보통합 실행에 대한 의견 및 요구 분석

- 우리나라에 맞는 유보통합으로 '완전통합(60.0%)', '열린통합(15.6%)', '부분통합(13.8%)' '선택통합(5.5%)' 순으로 응답함.
- 미래 영유아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양질의 공교육, 일관된 교육의 틀로 통합(21.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영유아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함(16.7%), 교육·보육을 포함한 육아 전반의 발전으로 연계 확장(7.9%)으로 나타남.
- 적절한 유보통합 방식으로는 하향식 74.9%, 상향식 21.8%으로 나타나, 하향식의 중앙집권식 이행에 대해 높은 찬성 의견을 보임.

정책 제언: 유보통합 이행 전략과 실행 방안

- 첫째, 중앙 행정체계 통합방안으로 (1) 교육부 유보정책국으로의 통합안과, 유아교육과 보육,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2) 교육·보육·가족부 신설부처 통합안을 제시함.



- 둘째, 지방 행정체계 통합방안으로 (1) 교육청·교육지원청 산하 유보지원과로의 통합안과, 지방교육 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장기적 대안으로 (2) 일반행정체계 내에 교육행정을 포함시켜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통할을 받도록 하는 안임. 당장 실현하기 용이한 과도기 방안으로, 교육부로의 통합을 고려하되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완충형 업무분할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3) 현행 교육청-시도청 업무분할 통합임.
- 셋째, 중앙집권식 하향통합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유보 간 수평적 통합과 중앙-지방 정부 간 수직적 통합의 2가지 방안을 고려함. 이는 일정시점에 이행되는 획기적인 수평적 유보통합과 중앙정부의 큰 틀내에서 지자체별로 현안 중심의 통합을 이행하는 수직적 기능조정 방안을 포함함.
- 넷째, 상기한 3개 통합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 전략으로, (1) 소통과 공유의 여론 형성 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역설적으로 이원화 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틀을 통합하려는 기존의 담론(‘유보통합’)에서 벗어나 유보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discourse)과 틀을 제시할 필요에 대해 (2) 미래지향적 통합 전략의 재설정으로 제안함.

➤ 정책 제언: 유보통합 이행 전략과 실행 방안

- 첫째, 중앙 행정체계 통합방안으로 (1) 교육부 유보정책국으로의 통합안과, 유아교육과 보육,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2) 교육·보육·가족부 신설부처 통합안을 제시함.
- 둘째, 지방 행정체계 통합방안으로 (1) 교육청·교육지원청 산하 유보지원과로의 통합안과, 지방교육 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장기적 대안으로 (2) 일반행정체계 내에 교육행정을 포함시켜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통할을 받도록 하는 안임. 당장 실현하기 용이한 과도기 방안으로, 교육부로의 통합을 고려하되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완충형 업무분할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3) 현행 교육청-시도청 업무분할 통합임.
- 셋째, 중앙집권식 하향통합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유보 간 수평적 통합과 중앙-지방 정부 간 수직적 통합의 2가지 방안을 고려함. 이는 일정시점에 이행되는 획기적인 수평적 유보통합과 중앙정부의 큰 틀내에서 지자체별로 현안 중심의 통합을 이행하는 수직적 기능조정 방안을 포함함.
- 넷째, 상기한 3개 통합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 전략으로, (1) 소통과 공유의 여론 형성 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역설적으로 이원화 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틀을 통합하려는 기존의 담론(‘유보통합’)에서 벗어나 유보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discourse)과 틀을 제시할 필요에 대해 (2) 미래지향적 통합 전략의 재설정으로 제안함.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해미, 이규림, 이민경

배경 및 목적

-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등에 따라 영아 기관보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아보육 위주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전국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부모 총 96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 가정어린이집 원장 총 106명을 대상으로 영아반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각각 조사함.

연구결과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실태 및 요구

- 2016년 3월 기준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1.43년이고 2년 미만이 78.8%를 차지하며, 영아반 교사의 재교육 미이수율은 67.3%로 높게 나타남.
-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환경에 대해서는 '실내외 놀이공간과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가 4.20점(5점 만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가 4.1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1순위 응답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아반에 가장 필요한 항목은 보조인력 지원이 51.9%, 가정어린이집 영아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요구 항목은 교사 인건비 지원이 41.5%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요구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동기로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1.3%이며, 해당 응답율은 특히 0세아를 둔 가구에서 83.6%로 높게 나타남.
- 평가인증 기관이 미인증 기관에 비해 시설 및 환경, 보육내용,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 급간식 관리, 하원 시각, 부모참여, 긴급보육 대응 정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서비스 만족도는 원장/교사의 전문성이 평균 4.6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모참여는 평균 4.44점, 시설 및 환경 부문이 평균 4.5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영아를 기관에 보낼 때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원장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 평균 4.71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자녀가 영아일 때 소규모 기관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4.4%로 조사됨.

정책 제언

- 가정어린이집 영아반은 맞벌이 가구 대상 종일반 위주로 하되, 특히 0~1세 보육에 주력함.
- 영아보육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벌이 가구 밀집지역 등에서는 0~1세 영아전담 어린이집, 아동수 감소 지역 등에서는 1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영아 기관보육 다양화를 추구함.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1) 보육환경 구성 및 운영관리를 위한 가정어린이집 영아반용 별도 지침 마련, 2) 보육환경 등의 측면에서 우수사례 발굴 및 발간 배포, 3) 교구교재비 지원 시 우선순위 적용 등이 요구됨.
-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1) 보육과정 컨팅 지원 강화, 2) 영아 특별직무교육 내실화, 3) 대체교사 지원 강화, 4)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소모임 지원 등을 모색함.
- 부모참여 및 가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1) 지역내 부모참여 프로그램 정보 제공 강화, 2)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서비스 기관 연계 강화, 3) 부모 모니터링단 평가 결과와 컨설팅 지원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함.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연구

김은설, 이재희, 김정숙, 박은영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방법

- 아동 발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문헌 검토.
- 해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 검토 및 해외 사례 방문 조사.
-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관련 전문가 260명 대상 의견 조사.
- 연령별, 기관 유형별 기준에 근거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관찰·조사.

연구결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현황

- 유치원의 경우 3세는 한 학급 당 15~18명, 4세는 20~30명, 5세의 경우는 21~30명까지 허가하는 경우 등 각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었음.
-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국가 수준에서 규정되어 일괄 적용되고 있음(0세는 교사 1명 대 아동 3명, 1세는 교사 1명 대 아동 5명, 2세는 1:7, 3세는 1:15, 4, 5세는 1:20).

해외 사례

- OECD 국가의 경우 교사 대 영유아 수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사 당 영유아 수가 매우 낮은 스코틀랜드의 경우, 5세에 초등학교 입학하여 상대적으로 영유아기가 짧고 교사 및 교직원 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보모(child-minder)도 함께 활용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유치원의 적절한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질문결과 3세의 경우,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평균 14.8명이었으며 4세는 19.4명, 5세의 학급당 적정 평균 유아 수는 22.9명으로 응답함.
- 어린이집의 경우 상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 0세 2.1명, 1세 3.7명, 2세는 5.6명, 3세 10.8명, 4세 14.5명, 5세는 16.2명이었음.

관찰사례 분석 결과

- 아동 상호간 상호작용보다 교사-아동 간 상호 작용이 활발한 0, 1세반의 경우 현 아동 수 규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학급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 수 축소보다는 지원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관찰됨.

정책 제언

해의 사례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에 대한 5가지 대안을 제시함

- 1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에 대한 개선.
- 2안: 학급최대 규모 규정을 개선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
- 3안: 연령 구분을 재구성과 다인교사의 집단 담당.
- 4안: 교사들이 아동을 다루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3세반 인원 기준 우선 개선.
- 5안: 보조교사나 보조인력을 투입하여 성인 대 아동 수를 줄이는 방안.

제안별 예산 변동 추정

- 각 안에 따라 최소 8,40억원 가량부터 최대 3,500억원까지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

배경 및 목적

- 영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기사교육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통해 사교육 및 특별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조사연구(설문조사, 학원사례조사, 상담사례분석),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함.

연구결과

영유아 하루일과

- 2세와 5세의 하루일과 중 사교육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습에 할애하고 있음.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 2세아의 35.5%, 5세아의 83.6%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세아는 주당 1.7가지의 사교육을 2.6회, 1회당 47.6분씩 하고 있고, 5세아는 주당 2.2가지의 사교육을 5.2회, 1회당 50.1분씩 하고 있음. 2세와 5세 모두 국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음.
- 영유아 1명당 월간 사교육비용은 월 가계소득의 4% 내외 수준으로 2세아는 사교육에 월 134,300원, 5세아는 사교육에 월 161,300원을 지출하고 있음.

영유아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 조사 대상 2세의 75%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1주일에 평균 2.6가지를 평균 3회, 27분씩 참여함.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소요 비용은 1만 7천원이었고, 부모 부담 비용은 1만 6천원임.



- 5세아의 91%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였고, 참여하는 경우 평균 3.4가지를 주당 4.4회, 회당 32분씩 참여함.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소요 비용은 1만 2천원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은 1만원임.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

-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의 이유는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꼼꼼한 관리,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임. 반면 학원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기준에 대한 규정 부재, 비용 부담이 불만 사항임.

상담치료 사례분석

-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동기는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 부모자신의 열등감, 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 등임.

정책 제언

- 하루일과에서의 영유아의 놀 권리 및 균형 보장
- 사교육 의존 탈피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 회복
- 영유아 발달 이해 및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영유아 대상 학원의 질 관리
-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 욕구 최소화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욕구 흡수
- 장기종단 연구 수행 및 결과 공유를 통한 교육의 방향 제시
- 전반적인 교육정책 재고를 통한 사회 분위기 쇄신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 시스템 구축

박원순, 김동훈, 김승진

배경 및 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인 자립에 집중되며 각종 취업관련 지원방안은 많이 이루어져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양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일이 많았음.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과 필요를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그들의 자녀양육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2016년 9월 한 달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적응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이용실태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자녀 양육 실태

-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동거 가구원 수는 3.1명이며 대상자의 과반수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80만원, 영유아 자녀를 위한 월 양육비용은 약 45만원임.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이며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요구도 현금지원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의 양육 정보 중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주로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은 육아지원 전달체계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임.



- 북한이탈주민은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은 긴급한 경우에 자녀를 맡길 곳으로 가장 먼저 친구나 이웃이며 긴급할 때 맡길 곳이 없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음.

사회 관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양육 실태

- 북한이탈주민이 맺고 있는 사회 관계망은 단순한 강한 연결 중심의 사회관계망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관계망 형성을 추구하여 약한 연결의 사회관계망을 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에게의 정보 전달은 미흡한 실정임.
- 주민센터 등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안내가 필요.
- 대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문자 등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필요 있음.

정책 제언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향을 가정 중심으로 전환
- 북한이탈주민 ombudsman 제도 도입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양육/지원매뉴얼 제작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성별, 세대별 등의 변인에 따른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하고자 함. 주요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지원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포커스집단 면담,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 20~50대 성인 총 1,000명(미혼, 20, 30, 40, 50대 각 200명씩, 연령대별 남녀 각 100명씩), 이혼한 한부모 100명(편보 60명, 편부 40명), 의도적 무자녀가정 100명임.

연구결과

한국인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요구

- 응답자의 64.5%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나, 여성의 경우 없어도 된다(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비중이 약 20%에 육박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43.3%) 때문임.
- 좋은 부모됨의 조건 및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모두 경제력이 가장 높게 응답됨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실제와 요구

-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은 평균 24.8%이고,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함.
- 부모의 생애주기별 관심 양육이슈는 '부모됨 의미→자녀돌봄→자녀 학교생활 적응→자녀의 교육·학습지원→자녀의 취업'으로 변화함.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는 영유아기가 과반 이상을 차지함(55.3%).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자녀양육관

- 한부모는 자녀출산 전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한부모가 된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초과함
- 의도적 무자녀 부부는 자녀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자녀보답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임. 탄력근무제(25%), 보육료·교육비 지원(23.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20~50대 세대의 공통적 특징은 '경제력'이 자녀양육에 가장 큰 이슈임. 자녀 영유아가 양육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가족의 원만한 유대관계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2008년과 2016년도 자녀양육관 변화

- 과거와 비교하여 2016년도에는 자녀성장에 있어서의 부모 영향력 정도 및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함. 반면, 부모역할 수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증가

정책 제언

- 부모로서의 자아 형성, 자아영역, 역할구조 등을 재조명하고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의 수용도와 효과성을 과거와 현재의 한국부모 자녀양육관 및 양육문화의 핵심 키워드인 자녀교육의 관점에서 검토 및 향후 방향성 모색 필요
- 한부모 가족 및 의도적 무자녀 부부의 증가는 표준적인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을 시사함.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

도남희, 박창현, 김지현, 조혜주, 서유현, 최옥수, 이은정

배경 및 목적

- 미래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창의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연구방법

- 창의성 관련 국내·외 최근 연구 동향과 정책 자료를 수집함.
- 서울·경기·인천 지역 5세 유아, 초등 2학년, 5학년 아동 27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창의성 검사,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 후 지원자에 한해 뇌 촬영을 실시함.

연구결과

창의성에 있어 아동 특성

- 창의성과 아동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보다는 여아의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과 창의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창의성이 높았음.
- 창의성향이 유아보다 초등학교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창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창의성에 있어 부모 특성

- 부모 연령대가 높은 경우, 창의성 검사의 조망/원근법의 수행에서 높았음.
- 부모의 학력은 창의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한 결과는 없지만, 학력이 높은 경우 새로운 요소 첨가나 주제 구성과 관련이 높아 보였음.

창의성과 가정환경

- 가정의 자녀수와 지역규모와 월 소득에 따라 창의성의 선연결(CI)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평균점수의 단순 비교를 볼 때, 가족 상호작용에서는 유연성이 높은 집단, 창의적 가정환경에서는 아동준중이 높은 집단의 경우 창의성 수행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 창의성과 양육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횟수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쳐 사교육횟수가 증가할수록 창의력이 감소하였음.
- 창의적 가정환경 중 독립심 자극은 창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창의성 점수가 높을수록 우측 설전부의 뇌 활성화가 감소함을 의미하고 이는 공간회전 과제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뇌 활동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여 낮은 활성화를 보였음.

정책 제언

- 가족과 친밀함을 나누며 가족관계에서 의사결정이나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
- 아동의 관심과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경험과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야 함.
-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며 성취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유아기부터 배우고 알아가는 중요성을 배우도록 해야 함.
-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함.
- 추후 창의성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의 창의교육 효과 검증 연구를 기대함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Ⅳ)

박진아, 김나영, 이재희, 장문영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육아품목에 대한 육아물가지수와 육아물가체감지수를 지속 산출하여 가격 변동의 추이를 분석하고, 육아물가 변동 및 가격 수준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여 영유아가구의 양육부담과 소비지출 패턴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영유아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 분석을 위해 2016년 기준으로 영유아가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소비하는 육아품목과 지출 현황을 조사하여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를 재산정하고자 함.

연구방법

- 육아물가조사 시장조사(온·오프라인 시장가격조사), 부모 설문조사(영유아부모 체감물가 온라인조사), 영유아가구 1,419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조사 실시

연구결과

영유아가구 육아물가지수 산출

- KICCE 육아대표품목 53개를 적용한 2016년 육아물가지수는 2015년 대비 상승함.
- 반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내 12개 육아품목을 적용한 KICCE 육아물가지수(1)은 2015년 대비 3.84% 감소함.

영유아가구 육아물가체감지수 산출

- 육아 소비재의 경우, 2013-16년도 기간 동안에는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3개 부문 모두 체감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육아 내구재의 경우, 2013-16년도 기간 동안에 가격체감지수는 2014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변동체감의 경우는 반대로 201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16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가구 양육비 조사 결과

-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 결과, 월 평균 양육비는 94.4만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19.3%, 가계지출 대비 21.7%를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1인을 양육하는 데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87.8만원이며 영유아 2인을 양육하는데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106.6만원으로 조사됨.

육아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 2012년과 비교하여 영유아 가구의 지출비중이 감소한 품목은 분유, 기저귀, 예방접종비, 영유아 학습지,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타남.
- 반면 비타민, 유치원순교육비 및 추가비용, 어린이집 추가비용 등의 지출 비중은 증가함.

정책 제언

- 전국 규모의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의 필요성
- 육아지원설계의 보완: 기관이용에 따른 지원이 아닌 이용시간과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보완 필요
- 영유아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 차이가 아닌 소득계층과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정책 도입
-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배경 및 목적

- 여성의 일·가정 양립 도모와 자녀 성장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버지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실태 및 양육역량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전국 생후 12개월 이후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1, 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각 500명씩 총 1,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함.
- 아버지의 양육역량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일 연령대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500명 대상으로 동일한 표집방법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함. 어머니는 남편의 양육역량을 응답함.
- 2013년 기 개발한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7개 영역 76문항)를 아버지 양육역량 측정에 맞게 수정, 보완함(4개 영역: 발달과 놀이, 건강·안정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51 문항으로 조정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함.

연구결과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 대응표집은 아니지만, 두 집단 특성이 거의 유사함. 대체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30~40대, 4년제 대졸, 화이트칼라(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가 주를 이룸.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는 약 20% 내외이며 아버지 교육을 받아본 경험자는 이보다 적음. 주중 자녀돌봄시간은 아버지 본인은 2~4시간이 가장 많고, 배우자(어머니 응답)는 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음.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 4개 양육역량 영역 중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영역 점수가 가장 낮음.
- 대체적으로 대도시 거주, 대졸 이상의 화이트 칼라 종사자, 고소득 아버지의 양육역량 점수가 높음.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3.6점), 아버지 교육을 받은 아버지(3.7점), 주당 초과근무횟수가 적은 (1~2회) 아버지(3.5점), 유년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아버지(3.7점)의 양육역량 점수가 높음.
- 응답자의 85%~90%가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사무직 종사자 아버지는 직장에서, 블루칼라와 자영업 종사자 아버지는 집근처에서 교육을 선호함.

정책 제언

제도적 지원

-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지원, 예비 아با를 위한 교육지원(예: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활용), 남성이 많은 직장의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 지표에서 아버지 교육 추가, 오프라인 아바 카페 개설

교육 지원

-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나영, 도남희, 이동하, 조혜주

배경 및 목적

- 자녀양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구에게는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정책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이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친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연구방법

- 선진국의 시간정책 사례
- 시간정책 이용 및 만족도 실태조사
- 자녀돌봄 시간 결정 영향 요인 분석

연구결과

선진국의 시간정책 사례

-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각 국의 전체 기업 중 약 85%의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 및 육아 관련 유급휴직휴가의 기간과 실제 사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970년에 영유아 자녀를 둔 모(母)의 유급휴가 기간은 OECD 평균 17주였고, 1990년에는 그 보다 증가하여 39주였지만, 2015년에는 1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정책 이용 및 만족도 실태조사

- 현직장에서 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약 30.0%, 사용의 자유 수준은 '다소/매우 어려운 편'이 약 53.0%를 차지하여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임.



- 현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는 경우는 77.6%, 배우자출산휴가 52.1%, 육아휴직제도 61.1%로 나타났으나, 사용 자유 수준은 '다소/매우 어려운 편'이 47.6%로 높게 나타남.

자녀돌봄 시간 결정 영향 요인 분석

- 현 직장에서의 단시간근로제와 출산전·후휴가 시행은 자녀돌봄시간을 각각 19%, 24% 증가시킴.
-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돌봄시간을 각각 17%, 4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노사양측을 대상으로 시간정책의 수요와 정책사용 수준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 있음.
- 산업별 실태파악(평가)기준 수립.
-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하여 세부적인 대체 인력풀 조성.
- 사업규모 및 산업군에 따른 시간정책 활용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집중적인 지원 체계 구축.
- 자녀의 부(父)와 모(母) 간에 발생하는 자녀돌봄시간 결정 요인 및 정책 활용도의 차이점 파악.
- 주중과 주말의 시간사용 구성이 다른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인 육아지원 시간 제공이 필요.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Ⅵ):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강은진, 유해미, 윤지연

배경 및 목적

- 육아지원정책에서 그간 지원해 온 공공인프라를 환경으로 정의하고, 물적환경에 중점을 두어 국내 육아지원환경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함.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지역별 육아지원 환경 통계자료 등 문헌연구,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GIS 분석, 전문가 조사 및 영유아 부모 1,200명 설문조사, 국내외 아동친화도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연구결과

육아지원환경 정책의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착을 추구해온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 인천 광역시 서구의 사례 연구
-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아동친화도시와 어린이구역 사례 탐색

전국 지역의 육아지원 환경 평가

- 선행연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여섯 개 영역 및 하위 요소로 정리함. 영유아 교육·보육영역, 종합육아 지원서비스 영역, (맞춤형)돌봄지원 영역, 문화인프라 영역,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임.
- 지역별 공급수준의 편차가 컸으며, 낮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지역도 많았음. 대도시가 주로 국공립유치원과 전체어린이집의 공급 하위지역으로 평가됨.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군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이 높았음.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대체로 하위지역으로 평가됨. 문화인프라의 공급수준은 대체로 낮았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중 군지역은 보건소의 공급률이 높음. 안전관리·보호 영역은 전반적으로 공급수준이 낮음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환경 만족도와 요구

- 육아지원환경 평가결과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육아지원기관 미이용 부모가 81.9%로 높았으며, 안전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남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요구 및 개선점

- 각 서비스에 대해 충분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가정 양립의 도움정도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인식.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정책 제언

- 전반적으로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수준이 낮았으며, 상위지역과 하위지역간 격차가 매우 큼
- 육아지원환경 공급 수준-만족도 분석결과 유아교육·보육영역에 대한 부모들의 이용 만족도 높았으나, 안전관리·보호영역은 부모의 만족도 낮았음. 그 이외 영역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음
-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중앙 차원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를 단일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지방 차원에서 육아지원환경 총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계획-실행-성과관리 체계 구축, 기존 공공 인프라 중심 기능 통합이 제안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증진 방안

강은진, 김정숙, 김승진, 안혜준

배경 및 목적

-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교사의 신념이나 기술만큼 교사의 정서적 역량도 중요함. OECD 등 해외에서도 개인으로서의 근로자의 행복, 직장에서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직업의 질을 측정 관리하고 있음. 교사들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직업행복감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543명 대상 직업행복감 실태 조사, 22명의 교사에게 일상재구성법을 통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협의회 진행

연구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실태

- 직업행복감을 문헌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관계영역, 근무환경 영역, 직업의식 영역, 정서 영역의 4개 영역으로 조사함
- 관계영역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으며,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들의 점수가 모두 높음
- 근무환경영역(근로시간, 일과 개인 삶의 조화, 소득원의 물리적 지원, 업무환경의 안전(건강), 교사교육, 단체 참여)은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낮음
- 직업의식영역은 단일요인으로 대체로 높은 편임
- 정서영역은 긍정적인 감정(3.5점)이 높은 편이며 부정적인 감정(2.7점)은 낮은 편이나, 유치원 유아반 교사들의 부정적 감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구

-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6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계영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 추가분석을 통해 직업행복감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직업행복감 지수에 '근무환경 영역'과 '직업의 식 영역'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 관련 사례 분석

- 22명의 교사들에게 10동안 행복감 정도를 체크하고 일화기록을 하도록 함
- 오전 활동시간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등원, 출근시간, 오후 활동시간 순으로 높음
- 반면 오후 근무시간은 가장 낮은 행복감 나타냄. 점심시간과 하원지도 시간도 상대적으로 낮음

정책 제언

- 관계영역 증진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동료 및 원장 리더십, 교사존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교사를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접근성 제고 제안
- 근무환경 증진을 위해, 교사의 법적 근무시간 재규정 및 인력 배치, 교사의 급여 증대를 위한 현 급여 체계 관련 점검 필요, 영유아뿐만 아니라 교사를 고려한 물리적 공간 기준 제시 등 제안
- 정서 증진을 위해, 경력별 교사의 정서역량 개발 기회 제공, 다양한 휴게시간 확보를 통한 부적 정서 감소 방안 마련
- 직업의식 증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직업 인식에 대한 대국민 홍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필수 업무에 대한 조정, 교사 학습연구제 도입 및 확산, 교사, 학부모, 기관장의 윤리강령 마련 및 확산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누리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수준의 유아교육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연구방법

-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심층면담, 사례조사, 설문조사

연구결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

- 누리과정 정책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으로 인식되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으며, 누리과정에서는 보육교사와 기관의 질 제고에 대한 네티즌들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으며,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CCTV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었음.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 오전 특별활동 감소, 바깥놀이 시간 증가, 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이 강화되었다고 인식되었으나,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과정 운영 자율성은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으며, 원인은 누리과정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 누리과정 운영시간과 일과시간이 획일화로 나타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교육과정 운영 및 지침, 행정적 지원, 법제도, 조직/경영/연구 영역이 정책 우선순위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유아기 표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누리과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 국가수준 누리과정의 슬림화, 지역화 및 교육과정의 재구성 강조
- 아동권리 및 문화적 다양성, 공동체적 삶에 대한 교육내용 강화
- 기관의 운영시간 및 운영 형태의 다양화 독려
- 교사 1일 근로시간 8시간 준수, 수업준비시간 3시간 확보 조례 마련
- 교사 연수제도의 프레임 변화 및 고경력 교사 채용 시 재정지원 조항 마련
- 평가 체제의 변화 및 개선에 대한 요구
- 민주적 거버넌스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 장애통합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및 인력 지원
-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 및 재외국민 지원방안 검토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배경 및 목적

-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각 세부 지표별로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협력진, 전문가의견조사 등 실시
- BSC (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 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함. 누리과정 관련 정부 보도자료에서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를 개발함. 2개 정책비전(유아교육·보육 국가책무성 강화, 생애출발선 평등 보장) 및 4개 관점을 통틀어 7개 전략목표, 15개 성과목표, 29개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출함.

연구결과

고객관점

- 총 8개 KPI에서 달성 2개(비용지원 가구 확대, 기관 이용률 확대), 부분 달성 5개(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학부모 만족도, 공통과정의 질향상, 교육·보육 환경 개선, 교사 처우 현황), 미달성 1개(기관에 내는 추가비용 변화)임.

재무관점

- 총 3개 KPI에서 부분달성 1개(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미달성 2개(누리과정비 연도별 증액 못함, 누리과정 지원 단가 산출 근거 미약)임.

내부프로세스 관점

- 총 6개 KPI에서 달성 2개(계획대로 공통과정 제정, 누리과정 운영시간 준수), 부분달성 1개(방과후 과정 준수), 미달성 3개(공통과정 제정 소요기간 부적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의 및 갈등조정 기구 부재)임.



학습 및 성장 관점

- 총 12개 KPI에서 달성 5개(교사수준 향상, 교사연수, 정부계획 대비 공립유치원 설치,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확대), 부분달성 5개(누리과정이 유아발달에 도움정도, 행정업무증가, 교사연수방법, 학부모의 기관선택권 확대), 미달성 2개(누리과정 관련 법령 및 법률과 시행령 간의 상충되는 법조항 정비)임.

정책방안 제언

-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 교사 수준의 표준화.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검토
- 누리과정 예산 확충
-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 갈등조정 기구 설치·운영
-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조건 조정
-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변경 검토
- 점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문무경, 이규림,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누리과정을 커리큘럼으로 인식하기보다 비용지원의 측면만 부각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작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검증이 미흡함
-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및 외부에 의한 모니터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의 질 향상을 위한 원내외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17개 시도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실태조사, 교사 및 원장 설문조사, 사례조사 포커스집단 면담,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워크숍 개최

연구결과

누리과정 실행 모니터링 현황 및 실태

-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장학, 컨설팅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멘토링제, 우수수업 동영상 활용, 수업기술 공유 온라인사이트 운영 등을 실시함. 이중 컨설팅장학과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수업모니터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체사업 보다 중앙센터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더 많음.

누리과정 실행 모니터링에 대한 교사와 원장의 인식 및 요구

- 유치원 교사는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을 원내 모니터링으로 가장 많이 경험(87.1%)하였으며, 더불어 가장 선호(21.7%)하는 원내 모니터링 유형으로 조사됨. 어린이집 교사는 '일일교육 계획안 검토(65.7%)'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강사 초빙 원내 집단연수(22.4%)'를 가장 선호함
- 효과적인 모니터링 유형으로, 수업공개를 통한 동료장학, 원내 멘토링, 일일교육계획안 검토의 원내 모니터링 3개 유형으로 조사됨



- 모니터링으로 인한 업무과중(유치원 49.8%, 어린이집 46.0%)과 시간 확보의 어려움(유치원 33.2%, 어린이집 33.9%)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누리과정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IPA)

- 누리과정 계획-실행-평가 중, '실행'의 중요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평가'의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IPA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우선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제 2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5개 영역의 균형적 실행', '바깥놀이', '연령 수준에 맞는 활동', '융통성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활용'이 포함됨

정책 제언

- 원외 모니터링 방안: 1) 시도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역량 강화, 2) 효과적인 기존의 모니터링 유형 활성화, 3) 기관형태 및 교사경력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화, 4) 누리과정 교사연수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일관성 유지, 5) 연수기회의 형평성 보장 및 누리과정 연수방식의 효율화, 6) 방과후 교사에 대한 원외모니터링 강화
- 원내 모니터링 방안: 1) 중고경력 교사 활용을 통한 학습공동체 기반 모니터링 강화, 2) 원장의 누리과정 리더십 강화, 3)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교사 동기유발 및 인센티브 제공, 4) 원내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개발과 배포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 연구(Ⅳ)

최효미, 김길숙, 이동하, 임준범

배경 및 목적

-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실태 및 정부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1,312가구 / 아동 1,820명),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영유아 부모 20명),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연구결과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 분석

- 어린이집 이용 시작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2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
-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행된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동일 연령대 기준 평균 교육·보육비용이 감소
-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이 시행된 2013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띠
- 한편,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가구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지출 비용이 적은 분위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 아동별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16만 9천원이며,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평균 6만 5천원, 유치원 19만 4천원, 반일제 이상 학원 61만8천원임



-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시간제 학원, 학습지, 개별 및 그룹 지도, 통신교육 등) 평균 이용비용은 11만 8천원이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월평균 56만 3천원임
- 연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규모를 추산해보면, 6조 4, 114억, 8,534만원에 달함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이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6%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인 유보가격은 평균 5만7천원임.
-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으로는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1.1%로 가장 많았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24.7%, 특정 연령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13.7%임

정책 제언

- 적정 수준의 국가지원기본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가정 내 양육 지원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하는 한편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과도한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지도 강화
- 현행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체계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정비 필요
-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와 중재 프로그램 실시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6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과제로 진행되는 보육비용 산출연구 중 4차년도 과제로, 종일반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를 중심으로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연구방법

- 보육통계 및 전국보육실태조사 등 최신 실태·통계 자료를 근거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의 2015회계연도 어린이집 공시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등 어린이집 특성별,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함. 최종분석 어린이집은 23,799개소임.

연구결과

종일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77인 규모 일반어린이집)

- 인건비를 전체 어린이집 평균으로 적용한 결과(1안),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은 0세 94만 2천원, 1세 65만 3천원, 2세 51만 7천원, 3세 37만 7천원, 4세, 5세는 33만 5천원임.
-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수준으로 인상·적용하여 산출한 결과(2안), 0세 102만 2천원, 1세 70만 2천원, 2세 55만 2천원, 3세 39만 4천원, 4세, 5세는 34만 8천원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과 조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하여 1,944,105원으로 산출됨.
- 시간당 시간연장 보육비용은 급간식비는 시간연장 최초 1시간 이용에 모두 투입된다고 보아, 최초 1시간은 5,370원, 이후 1시간 초과시 부터는 3,920원으로 산출됨.



24시간 보육서비스 영유아1인당 월 보육비용

-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665,503원이었으며, 이중 영유아 1인당 인건비가 월 388,821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276,682원으로 산출됨.

휴일 보육서비스 영유아1인당 월 보육비용

- 휴일보육에 따른 교사 근무수당은 60,000원, 영유아 1인당 월 23,530원으로 산출됨.

정책 제언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상이 필요함.
- 보육비용 산출 및 지원이 영유아 1인당에서 시설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보육비용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반영되어야 함.
- 맞춤형이나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논의 등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이 필요함.
- 어린이집 정보공시의 공시기간을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보의 허위 공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이 필요함.
-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지급기준 또한 상승하고 있어 2013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재산출이 필요하며, 최소 5년 단위의 조사주기나 조사항목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함.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4차년도 연구로, 기존 산출 모형에 근거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함. 또한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의 산출모형, 산출방식 등을 비교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표준유아교육·보육비 산출 모형 제시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함.

연구결과

유치원 교육비 현황

- 공·사립유치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지역 규모별 세출결산을 비교하면, 공·사립유치원 모두 중소도시 지역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게 산출되었으며, 기관 규모별로는 공립은 소규모 기관이, 사립은 대규모 기관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 결산자료(2012년~2014년)를 활용하여 비용함수모형이라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학급당, 원아당 경비를 단위 유치원별로 산출한 결과, 공립유치원과 비교하여 사립유치원의 낮은 수준의 원아 1인당 월별 금액을 나타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 표준유아교육비는 표준인건비와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공·사립별로 구분하고, 표준교육활동경비와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경비지출 단위별로 산출함.
- 유치원 총 표준인건비는 2조 1,037억 원이고,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는 연 평균 329만 원, 월 27만 5천 원임.



- 전체 유치원의 교육활동경비 총액은 4,526억 48만 1천 원으로 표준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연평균 71만 원, 월평균 5만 9천 원임.
-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는 연간 168만 9천 원, 월평균 14만 1천 원이며, 표준공통운영 경비 총액은 공립유치원이 2,264억 742만 7천 원, 사립유치원이 8,509억 1,059만 2천 원으로 총 1조 773억 1,801만 9천 원임.

표준유아교육비 규모

- 기관 규모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대규모 1조 4,215억 248만 3천 원, 중규모 1조 2,866억 8,741만 3천 원, 소규모 9,254억 5,415만 원이고,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소규모 145만 1천 원, 중규모 201만 7천 원, 대규모 222만 8천 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함.

표준 공통 유아교육비·보육료(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 개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 체계와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기에 인건비는 항목에서 제외한 안을 1안으로 제시함.

논의 및 정책 제언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활용에 대한 논의
- 유아교육비 지원의 쟁점
- 표준 유아교육비·보육료(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제언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배윤진, 김아름, 송신영, 권지성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입양 전반에 걸쳐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입양가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현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임.
- 입양 전에는 입양대상아동으로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으며 제도 및 절차상 아동의 발달을 돕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입양 후에는 입양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찾고자 함.

연구방법

-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를 통한 입양 관련 현황 파악,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제도 분석
- 입양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입양가정 39사례를 수집하여 심층면담 실시

연구결과

입양자녀 양육 현황

- 자녀를 입양한 주된 이유는 부모의 난임·불임이었으며, 입양 결정 시 사회적 편견이 우려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평일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 3.18시간, 어머니 7.59시간 등으로 보고되어, 2015년 보육실태 조사 및 한국아동패널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며, 부모들의 양육행동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임.
-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되었으며, 자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양육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높아짐.



입양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및 요구

- 대부분 부모들이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실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무 교육시간(8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61.4%가 적정하다고 평가함.
- 입양자녀로 인한 입양휴가제 및 육아휴직 활용 비율은 낮은 편임.
- 현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며,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입양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보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할 때 입양가정 자조모임에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음.

정책 제언

- 입양 전 아동 보호 제도: 분리 경험 및 급격한 변화의 최소화, 발달에 적합한 환경 제공,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전 입양부모와의 만남 및 위탁 규정 마련, 입양부모-아동 결연위원회 구성
- 입양가정 지원 제도: 입양사업의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원 형태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구성 및 확대,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중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실무자의 입양실무역량 강화
-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에 대한 입양가정에서의 건강한 대처, 언어 사용에서의 편견 해소, 반편견 입양교육 및 건강한 입양문화 확산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I):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김길숙, 박진아, 최윤경, 이세용, 임현정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에 개발된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4, 5세 유아에게 적용하고 효과성 검증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연구, 조사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를 수행함.

연구결과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효과성 검증

-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의 6개 영역 중 유연성($F=4.76, p<.05$), 평형성($F=8.68, p<.01$), 순발력($F=8.4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유아의 영양·식습관 효과 검증 결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음.
- 프로그램 참여 후 유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통이상(3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 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배운 활동을 가정에서 얼마나 했는지 살펴본 결과, 구르기($M=3.58$)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다음으로 한 발로 서서 균형잡기($M=3.52$), 줄넘기($M=3.12$)였음. 반면 팔굽혀펴기($M=2.32$), 게처럼 걷기($M=2.34$), 스쿼트($M=2.38$), 곰처럼 걷기($M=2.41$)는 적게 함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사항

- 교사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의 교사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항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교육 제공 자료, 프로그램 진행 자료 제공 등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교구 제공에 불만족한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남.
- 활동에 필요한 교구 제작 배포, 체육전공자에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사교육, 교사교육 참여 교사를 위한 이수증 수여,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요구함.

정책 제언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바깥놀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
- 신체 건강 증진 활동 프로그램 진행 시 수업에 필요한 제작된 교구 보급
- 신체활동(체육) 전공자에 의한 모니터링 지원 체계 구축
- 영양·식습관 교육 시 외부 강사풀 활용
- 교사교육 시 집합교육 외에 잘 제작된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방법을 병행
- 유아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를 포함한 프로그램 설계를 고려. 또한 부모교육 시 집합교육, 가정통신문, 소책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신체 건강 관련 주요 부처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 모색하도록 함.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 권미경, 윤지연 외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평가 연계 컨설팅의 마련과, 현재 외부로부터의 평가와 점검 위주의 질 관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컨설팅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함.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관련자료 분석
- 연구-사업 컨소시움(한국보육진흥원, 보육전문가 5인)을 통한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시범 적용
- 컨설팅 결과(보고서, 사전-사후 평가, 만족도 조사) 분석

연구결과

어린이집 3차 평가인증 결과 분석

- 2015년 3차 평가인증 분석 결과, '안전' 영역에서의 3점(우수) 비율이 가장 낮고, 1점(미흡) 비율이 많은 영역은 '보육과정 운영'과 '안전' 영역으로 나타남. 3차 평가인증 결과를 통해 유추할 때, 현재 어린이집에서 질 제고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안전'과 '보육과정 운영'으로 보임.
- 컨설팅 참여 기관은 3차 평가인증 지표를 완료한 1,186개 기관 중 자발적으로 컨설팅 참여를 신청한 곳으로, 최종 90개 기관이 CARE 컨설팅의 전 과정을 완료함.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개발

- CARE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공유된 비전 및 가치(Common Value)', '역량(Ability)', '자원(Resource)', '동기부여(Empowering)'의 4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구성원 스스로 각 요소를 활성화시키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조직특성과 문화를 개선하는 모형임.



- 기존 평가 관련 컨설팅과는 차별화되는 조직진단과 자체개선 역량에 초점을 둔 '경영컨설팅'의 성격을 띠며, 원장의 리더십 개발과 이를 위한 구체적 관리행동(조직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피드백의 제공)의 내재화를 지향하고 개발함.
- 본 컨설팅은 신청접수, 컨설팅 계획, 실행, 결과보고 및 평가의 총 4단계로 소요기간 약 5개월이며, 1차 컨설팅 및 2차 개선확인의 총 2회 방문과 온라인 중간점검으로 이루어짐.

어린이집 CARE 컨설팅 시범사업 결과

- (컨설팅의제 설정/ 핵심행동 도출) 상호작용과 소통의 개선(교사-영유아간, 교사-원장간, 교사-교사간, 교사-부모간), 보육과정 및 교수법, 보육과정 계획 및 기록/정리에 대한 의제가 많았음.
- (컨설팅 사전-사후 평가) 원장의 평소 업무행동 4개(관찰, 문서점검, 피드백제공,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와 각 기관에서 도출한 핵심행동 2개에 대한 양적빈도와 질적평가를 원장과 교사가 실시한 결과, 컨설팅을 통한 핵심행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됨.

❖ 정책 제언: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질 관리 방안

- CARE 컨설팅 모형의 개발과 운영체계 시범적용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 컨설팅 개념의 전환과 평가-컨설팅 연계 강화: '평가=지원, 평가자=컨설턴트'의 개념으로 전환
- 의무평가제 도입 및 유보통합 평가에 대비한 미흡기관 맞춤형 컨설팅 도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컨설팅의 전문화 및 다양화
- 아동 중심의 환경-발달성과 모니터링 체계 도입의 필요성
- 컨설팅 지원의 제도화: 컨설팅 목표/주체/지원의 법적 근거, 컨설턴트 자격과 양성과정의 체계화
- 원장/교사 자격-양성-보수교육-처우 개선의 근원적인 노력 지속과 부모-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김은영, 박원순, 이재희, 이혜민

배경 및 목적

-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심각한 결과로 귀결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통해 영유아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모 1,139명, 교사 1,247명, 총 2,386명), 자문회의, 정책연구실 무협의회, 어린이 안전포럼을 실시함.

연구결과

영유아 학대 현황

- 1세 미만은 방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1~6세에는 정서학대, 신체학대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 메타분석 결과, 영유아 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애착, 양육태도임.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 정부에서는 201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학대: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는 '교사 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가정에서의 영유아 학대: 가장 큰 원인은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정책 제언

제도 및 행정적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학대 발생 시 기관 폐쇄 조항 개정,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분리 조사 및 전담조사제 도입
- 부처 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 활용,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가정방문 프로그램 활용,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지원 대상별 지원

- 부모를 위한 지원: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교사를 위한 지원: 현직교사교육 강화,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구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한국아동패널 II)

김은설, 배윤진, 조숙인, 이예진, 송신영, 임준범, 박은영, 김신경, 김은정

배경 및 목적

- 2008년 출생아를 초기 성인기(2027년)까지 추적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직·간접적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삶의 궤적에 따라 객관적·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연구방법

- 8차년도 기초분석 및 1~8차년도 종단 추이 분석을 실시함.
- 7회 학술대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1~7차년도 데이터 공개를 실시함.
- 9차년도 조사 문항 개발 및 조사 실시를 위해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연구결과

8차(2015년) 조사 결과 분석

- 8차 조사 참여 가구는 1,598가구로, 아동은 평균 87.98개월, 어머니는 평균 37.92세, 아버지는 평균 40.35세였으며, 88.2%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2.99만원으로, 어머니의 43.6%가 취업 중이었음.
- 부모의 결혼관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숙제 시 도움을 주는 사람은 90.3%가 어머니였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음.
- 패널 아동의 34.4%는 주 3~4회 학교에서 과제를 부과 받으며, 95.9%가 사교육을 이용하였음.
- 양육환경 중 놀이터, 공원, 산책로에 대한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과반수가 넘는 반면,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40%, 도서관에 대해서는 54.4%가 편리하게 인식하였음.



1~8차년도 주요 변인 추이 분석

- 하루 일과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5.54시간으로 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 평균 7시간 정도를 보내던 것에 비해 1시간 이상 감소되었고, 돌봄 서비스 시설 이용 시간은 큰 폭으로 늘어 2시간 30분 정도까지 늘어남.
- 어머니의 취업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취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어머니의 47.6%가 전문직 관련 종사자, 35.3%가 사무종사자였음.

9차(2016년) 패널 연구 사업 보고

- 9차년도 실사는 1,525가구로 전년 대비 95.4%의 성공률을 보임.
- 7회 국제학술대회는 영국의 Kathy Sylva(University of Oxford), 독일의 Bernhard Kalicki(The German Youth Institute, DJI)를 기조강연자로 국내·외 중단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함.

정책적 시사점

-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수의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기록부의 학교와의 연계 등과 같은 학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부모의 특성에 따라 취업모의 1학년 자녀에 대한 영유아 종일반 개방 등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탄력적 기능 강화, 저소득 가구 1학년에 대한 독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 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두 자녀 가정 수립 지원 및 모든 직장에서 유연 근무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자원으로 공공 도서관이 문화적 체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평가」 현장 적합성 제고 방안

권미경, 이미화, 배윤진, 윤지연

배경 및 목적

- 2017년 시행예정인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평가’의 실행 시 현장 적합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既) 개발했던 (2014년) 평가 운영체계와 평가 지표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수정하는 데 목적을 둬.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2014년 정책연구(조세재정연구원 수행)를 통해 구축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평가 체계 및 지표 내용과 2015년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평가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개선요구를 비교·검토하고 도출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수정 지표를 구체화하며, 수정된 지표에 기초하여 매뉴얼을 수정함.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진이 총 10차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 요구를 수합하고 의견을 조율함.

연구결과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

- 평가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행정처분, 법규 위반 사항 또는 민원사항 등이 있는 기관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료화가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대상기간이 직전년도 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이 보고됨.
-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알맞은 평가대상기간을 제시하거나,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방법 일부 수정, 직전년도 기록물을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

운영체계의 수정

- 통합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제시된 개선 요구와 더불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의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검토 의견을 종합하는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정 과정을 거침.



지표 개선에의 요구

- 지표 간 중복·모순, 문장의 명확성 등을 확인하고, 지표의 적용이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과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방향과 불일치를 보이는 부분 점검, 시범적용 결과 낮은 충족률을 보이는 지표의 적절성 여부 검토가 필요함.

지표의 수정

- 지표 항목은 간단히 진술하고 구체적 내용은 매뉴얼 내용으로 이동, 두 개 이상의 지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평가매뉴얼의 평가 준거로 포함하여 지표통합으로 인한 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반영, 영역별 수정 내용을 수정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평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지표 항목별로 정리함.

정책 제언

- 지표 및 항목수를 축소하여 6개 영역, 27개 지표, 134/144개 항목이던 것을 4개 영역, 20개 지표, 77개 항목으로 변경하고, 평가 영역의 순서를 변경하여 보육과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되는 보육·교육과정을 필두로, 보육·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 교직원의 순서로 제시함.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 운영체계 및 지표 개선안에 준하여 기 개발하였던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 매뉴얼 안'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김정숙, 이윤진, 조예운

배경 및 목적

-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이후 방과후 과정비가 보편적으로 지원되면서 2016년 기준 방과후 과정 운영률은 99.6%, 이용률은 67.7%에 이릅니다.
- 보편적 비용 지원으로 유치원 운영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도움 등의 긍정적 측면과 방과후 과정이 불필요한 유아의 이용, 이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초래, 방과후 과정 시간 준수 등의 불만 등의 부정적 측면이 공존함.
- 본 연구는 유치원 방과후 현황, 문제점 및 요구를 파악하고 방과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사례조사(공립유치원 5개, 사립유치원 4개),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결과

방과후 과정 현황

- 시작시간은 오후 2~3시가 51.3%로 가장 많고, 종료시간은 오후 6시~7시가 29.0%로 가장 많음.

방과후 과정 비용 및 이용 기준

- 정부가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 외에 추가로 내는 경우는 38.2%임. 월평균 추가비용은 6만2천원임.
- 방과후 과정시간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91.8%이며 월평균 추가비용은 8만3천원임.
- 방과후 과정 우선 기준은 '맞벌이 가정' 59.3%로 가장 많고, '기준없음' 39.6%, '저소득 가구' 38.7%, '한부모 가구' 35.2% 순임.



방과후 과정 개선사항

- 원장은 '운영비 지원확대'(46.9%)와 '보조인력지원'(43.1%)을 가장 희망함. 공립유치원은 '보조인력 지원', '방과후과정대상 조정'이 공동 1순위이며,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지원확대'가 1순위임.
-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은 '인건비 현실화'(23.4%), '고용안정성', '보조인력 확대', '업무경감' 순임.
- 학부모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내실화'(56.2%), '방과후 과정비 규제', '담당 교강사 자질 향상' 순임.

방과후 과정 운영 사례

-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수급의 어려움, 방과후 과정 이용 조건(일일 8시간 이상 기관 이용)에 대한 불만족, 운영비 부족, 방과후 과정이 불필요한 유아의 이용 급증, 학부모의 외부강사 초빙의 특성화프로그램 선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정책 제언

방과후 과정의 효율화 방안

- 방과후 과정 이용 대상자의 기준 재검토 필요, 국외사례 분석을 통한 방과후 과정비 산출의 면밀한 접근 및 장기적으로 누리과정 학비지원으로 전환 검토,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확보 및 보조인력 확대 및 업무 내용 명시 등

방과후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형(안) 제시

- 이용 기준, 비용, 운영시간, 인력 운영 등을 고려 '현재 절충형'과 '전환형'을 제시함.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개편 방안 연구

강은진, 김길숙, 조혜주

배경 및 목적

- 2016년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통한 이수율이 높음. 승급 및 일반직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각 특별직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됨.

연구방법

- 직무분석과 해외 교사재교육 사례 조사, 특별직무교육 현황 및 내용 분석, FGI를 통한 보육교직원 의견수렴, 특별직무교육 교과목 개요 제시

연구결과

특별직무교육 현황 및 요구

-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의 이수율은 대부분 95%이상이며,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순임
- 해외사례를 보면 세미나, 워크숍, 현장 멘토링, 온라인 연수, 정규과정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대면 특별직무교육 기관은 12기관이나 장애아보육과 방과후보육은 수강인원이 적어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폐강됨

특별직무교육 교과목 개편 방안

- 각 특별직무별 교사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직무내용을 교과목에 포함
- 영아보육: 영아발달 이해, 영아돌봄 기초능력(배변, 기저귀갈이, 수유 등), 영아 상호작용 능력, 흥미영역별 지도, 영아생활지도, 보건·위생관리, 영아 안전사고 대응, 부모와의 관계형성 및 부모교육 등
- 장애아보육: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유형 및 개별특성 이해,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 적용, 치료사와의 협력, 부모 상담, 장애아 행동지원 방법, 초등 연계 지도 등



- 방과후보육: 학령기아동발달의 이해, 인성 및 사회생활교육, 영양·건강관리 및 보호, 생활습관지도, 숙제 및 과제지도, 아동의 자발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식습관 지도, 집단놀이지도, 지역단체와 교류 등

❖ 정책 제언

- 대면 교육을 선호하나 현실상 참여가 어렵고 수강 교사의 동기에 따라 효과성도 엇갈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수교육 활성화 필요
- (일반직무, 특별직무교육) 대면 보수교육의 의무화. 신규로 일반직무교육을 수강하는 보육교사나 원장은 반드시 대면 형식의 일반직무교육 수강. 특별직무교육은 1회에 한해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필요
- 온라인 보수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방안 제시. 각 차시의 특성에 따라 토론방을 활성화하거나, 동영상 자료를 자세히 제시해 구체적인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전략을 알려주는 등 교수학습의 개선 노력 필요
- 보수교육 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일반직무교육을 승급교육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제시, 일반직무교육 수강 의무화로 연차와 분리된 직무교육을 위한 학습휴가제 마련, 보육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마련
- 보육교직원의 업무절감을 통한 교육 동기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 인력 수급이 어려우므로, 특별직무 담당 교사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지원 필요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김은설, 박진아, 김승진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유·보통함을 준비하는 맥락에서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실외놀이터, 교사실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안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 등과 관련한 문헌 검토
-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등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정보시스템(DW)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연구결과

어린이집 시설·설비 설치 현황

-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실 수와 놀이터, 사무실 등의 시설보유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실은 4.5개인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실과 조리실/급식실은 각각 94.6%, 87.4%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놀이터 시설의 경우, 실외놀이터 21.6%, 인근놀이터 11.3%, 실내놀이터 8.8%, 옥상놀이터 3.9% 순으로 나타남. 전체 어린이집의 46.3%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
- 건물 총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95.9%가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는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집의 14.3%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였고, 6.9%가 미끄럼대, 4.1%가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결과상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교사실이 있다는 어린이집이 52.2%임.
- 실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 놀이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이고 인근의 공원 등 공공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1.0%를 차지함.
- 비상재해대비시설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두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 시설의 71.2%가 설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8.8%가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정책 제언

- 실태조사결과와 선행연구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실의 기준 넓이를 교사 1인당 2.6㎡ 수준으로 제안함.
- 교사실의 필수실 지정은 신축, 이전을 위한 변경인가의 경우 등에 적용하여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현실적 공간 상황이나 교사 수 등을 고려할 때 21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필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실외놀이터 면적은 21인 규모의 어린이집일 때 최소 면적인 33.1㎡로 제안하였으나 이 기준은 어린이집 현장을 고려한 기준으로 이 기준이 놀이터로서의 역할에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실외놀이터 의무 설치에 다양한 측면에서 추후 검토가 필요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마련 연구

양미선, 이윤진, 최윤경

배경 및 목적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자료와 운영자료 분석하며, 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안)을 마련함.

연구결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및 운영 현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는 2013년 전체 평균 96.25점, 2014년 92.42점, 2015년 평균 97.63점
- 기본항목 중 평가인증 점수는 2015년 기준 35점 만점에 평균 32.06점으로 최소 25.38점에서 최대 34.74점까지 분포함.
- 건물소유형태는 20점 만점에 2015년 평균 19.06점으로 2013년 15.43점, 2014년 17.54점으로 매년 상승함.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중 1급 보육교사 비율은 30점 만점에 2015년 평균 29.61점, 2014년 28.92점, 2013년 26.98점임.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항목은 2015년까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취약보육서비스 개수로 평가함. 2013년은 5점 만점에 평균 2.66점, 2014년은 8점 만점에 평균 2.27점, 2015년은 6점 만점에 평균 2.18점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개발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운영·관리 기준에 포함하고, 선정 및 운영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가점, 이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체계를 마련함.
- 운영·관리기준(안)은 가·감점 부여 방식과 항목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 2개 안을 제시함.
- 2개(안) 모두 기본항목과 재정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맞춤형보육, 안전관리, 건강위생관리, 열린 운영 등 7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함.
- 1안은 28개 세부기준, 기준점수 85점에 가점 15점과 감점 10점을 배점하였고, 2안은 22개 세부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준수 여부 확인함.

정책 제언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점검결과는 재공인 평가 시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예:100점 이상)를 획득한 공공형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함.
-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함.
- 중앙 차원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최은영, 박창현, 송신영

배경 및 목적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 기능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연구 방법으로 문헌 분석,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연구결과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 모두 투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논의함에 있어 투명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해 원장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역시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공공형 사립유치원 선정 및 운영지표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선정 및 운영 지표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제도 추진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개별 영역의 지표를 평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이 제시되어야 함.
- 공공형 제도 도입 시 가장 바람직한 지원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추진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소요, 자원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적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정책 제언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의들이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육에 제대로 투자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질 높은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정부지원 없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 관리감독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허용하는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제도의 추진과 더불어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취약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이에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교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함.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을 통해 사립유치원 이용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함.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을 제외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원비 감소는 결과적으로 공사립 간 비용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함.

다문화유치원 실태 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문무경, 최효미, 이민경

배경 및 목적

- 교육부는 유치원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학습 맞춤형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고자 2015년부터 다문화유치원 30개원을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2개 지역에서 60개원으로 확대함.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다문화유치원을 유형화 기준을 마련하고 유형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시범기관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 분석, 설문조사, 사례조사, 심층면담, 자문회의 개최

연구결과

다문화유치원 기본 현황 분석

- 2015년 시범유치원의 다문화 원아가 1~4명인 기관은 4개원(13.3%), 5~9명인 기관은 14개원(46.7%), 10명 이상인 기관은 12개원(40.0%)였음.
-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문화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2015년 기준 전체 2,415명이었으며, 이 중 13.3%인 322명이 다문화 가정의 유아였음. 2016년도에는 총 5,125명 유아 중 11.0%임.
- 2015년 시범사업 참여 유치원의 교원 수는 총 302명, 2016년에는 총 620명임. 강사는 2015년 84명, 2016년 100명임.

다문화유치원 운영 실태

- 2015년도에 다문화 유아 대상 개별 언어교육을 실시한 시범기관은 총 21개원(70%)으로 경기도 지역의 6개원이 모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주로 언어강사(40.0%)와 담임교사(34.6%)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함.



-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은 연령별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생활주제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2013)에서 개발한 ‘유아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됨.
- 여전히 절반가량의 시범 유치원은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결산서 상에서 다문화유치원 사업비는 교구 구입비가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체험활동비가 23.8%로 다음을 차지함.

다문화유치원 시범사업 평가 및 지원 요구

- 가장 달성도가 높게 인식된 부문은 다문화이해교육(4.0점/5점 만점)이며, 가장 낮게 인식된 부문은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임(3.6점/5점 만점)
- 다문화유치원 시범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은 ‘다문화 교사의 전문성 미흡’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문화 부모의 관심 협조 미흡’이 28.7%, ‘다문화 유아 언어진단도구 부재’ (특히, 읍면지역)가 2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문화유치원 유형별 운영 방안

- 다문화유치원 유형화의 기준으로 1) 재원/담당하는 다문화 유아 수 (10명 미만과 10명 이상), 2) 재원/담당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능력(발달) 수준, 3) 다문화 가정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 가능성 및 실제 참여도를 제시함. 유형화 기준에 따라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 다문화유치원 컨설팅 체계화 및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및 교사연수 강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김길숙, 김지현, 이해민

배경 및 목적

- 부모교육 실시 현황 및 국내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자녀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보완점과 중복된 분야를 찾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함.

연구결과

연구의 배경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자녀의 생애주기별 발달특성에 따라, 가족 형태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며, 이러한 부모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이 필요함
-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의 내용은 생애주기별, 특히 가족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는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부모교육 실시 현황

- 현행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부모교육이 보다 다양한 대상과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실제적인 공유가 어렵다는 점이 제한점이며 취약계층 대상 부모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총 28종류로, 예비 부모용 4종류, 영유아기 부모용 12종류, 아동기 부모용 4종류, 청소년기 부모용 8종류였음.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총 17종류로 가족폭력·아동학대가족 1종류, 다문화가족 1종류, 맞벌이가족 1종류, 저소득가족 3종류, 이혼가족·이혼위기가족 1종류, 입양가족 2종류, 한부모가족 1종류, 그 외 조부모교육 1종류, 아버지 대상 교육 5종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부모교육 1종류임.
- 가족특성별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각 가족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을 부모교육에 담고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정책 제언

-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측면으로는 부모요구에 맞는 내용 구성, Fancy한 제목 선정, 단회기 구성,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양방향 소통 교수방법 적용을 제언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측면으로는 PPT, 동영상 제작 병행, 부모교육 강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부모교육 방법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부모교육 참여 신청 시스템 마련을 제언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 측면으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이수증 발급을 제언함.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청년 미혼 남녀의 만혼 및 비혼 현황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서의 결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실태조사(청년 미혼자 1,073명), 심층면담(40대 미혼 남녀 16명)

연구결과

청년층 비혼 실태 및 결혼 가치관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4.5%로, 남성과 고학력자가 결혼 의향이 높음
- 결혼 연기자들의 미혼 사유는 1순위가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26.4%)'였으며, 다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21.7%)', '소득이 적어서(14.1%)' 순임
-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비혼자)의 미혼 사유는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 비중이 높음
- 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45.9%,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28.6%, 비혼자 25.5%로 조사됐으며, 30대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높음.
-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은 80% 이상의 동의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40% 이하의 동의정도로 낮은 평가를 나타냄.
-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87.1%로 매우 높았고, 자녀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39.9%로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주거대책이 일자리 대책에 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됨.



청년 미혼자의 가족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 응답자의 75%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연기자는 90%가 출산 의향이 있는 반면 비혼자는 남성 45.8%, 여성 33.5%만이 출산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자녀의 출산 및 양육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었고, 그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으로 나타남.
-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43.0%는 '있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36.2%는 '없어도 괜찮다', '꼭 있어야 한다' 14.8%, '없는 것이 낫다' 6.1%로 나타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이 57.8%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
- 기혼자에 대한 태도는 '행복해보여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48.4%만이 동의해 절반에 못 미쳤고, 오히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스럽다'는 데 58.4%가 동의해 기혼자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출산을 제고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영역의 모든 사업들이 평균 3.1점 이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결혼지원을 위한 청년 주거·일자리 대책은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냄.

정책 제언

- 가족됨과 자녀 양육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인식 개선 필요
- 양성 평등적 육아문화의 정착과 확산
-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의 실효성 제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 연구

김아름, 배운진, 최윤경

배경 및 목적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동법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정부부처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집, 관계부처합동 해석 T/F 회의록,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간담회 등을 실시함.

연구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실태 및 요구

- 간담회와 면담을 통해 원장 및 교사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및 이해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지식도 스스로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었음.
- 다만,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공문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 정보는 전달받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원장 및 교사들은 부담스러운 선물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어 편해졌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담감과 긴장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음.
-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에 명시되어 있는 유치원과 달리, 법해석에 따라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특히, 누리과정 운영 여부에 따라 법 적용여부가 달라져 이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 한편, 교육적 측면에서 영유아가 직접 건네주는 선물은 오히려 받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점보다 아동중심의 해석을 통한 법의 적용이 필요함.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의 특수성 분석

-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대표자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나, 누리과정이라는 용어가 법상 사용되지 않으며, 누리과정이라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초등 이상의 학교와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한편, 각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청탁방지담당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장에게 부정 청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처리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임.

정책 제언

-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은 일괄적 법적용은 영유아의 교육적 측면에서 역효과가 우려됨. 이에 적용대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법의 적용이 명확한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새로운 입법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영유아기의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아의 별다른 의도 없는 선물은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배포가 필요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6
ANNUAL
REPORT**

III

2016년 연구지원사업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의
연구지원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주요 간행물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 3차는 신규직원의 연구실적 공유를 목적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2차는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보육 공공성 강화의 가능성과 한계', 4차는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 5차는 '기관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모 신뢰성 강화' 등을 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6. 3. 9(수) 연구소 대회의실	신규 연구직원 주요 연구 및 연구 분야 발표	발표: 김동훈 부연구위원, 김나영 부연구위원
제2차	2016. 6. 1(금) 연구소 대회의실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보육 공공성 강화의 가능성과 한계	발표: 유해미 연구위원, 도남희 부연구위원 토론: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신나리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이택면 센터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제3차	2016. 7. 13(화) 연구소 대회의실	신규 연구직원 주요 연구 및 연구 분야 발표	발표: 이재희 부연구위원, 김지현 부연구위원 조숙인 부연구위원
제4차	2016. 9. 2(금) 연구소 대회의실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	발표: 이윤진 연구위원, 양미선 부연구위원 토론: 한정란 교수(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조윤주 교수(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도미향 교수(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백선정 연구위원(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제5차	2016. 12. 13(월) 연구소 대회의실	기관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모 신뢰성 강화	발표: 강은진 연구위원, 김은설 연구위원 토론: 나달숙 교수(백석대학교) 조영석 사무관(교육부 육아교육정책과)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김용남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엄



제2차 육아정책심포지엄



제4차 육아정책심포지엄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

2016년에는 '자신만만, 행복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기획된 협의회는 2016년 연구소와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6년 개최된 '육아콘서트'의 개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해 네트워크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6. 1. 28(목) 연구소 대회의실	'자신만만, 행복육아' 문화 정착 - 2016년 연구소와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방안 논의 - '육아콘서트' 개최 방안 의견 수렴	원내: 우남희 소장 이미화 기획경영실장 이정원 연구기획팀장 권미경 육아지원연구팀장 외 원내 직원 원외: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부산)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과제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부모 대상 육아지원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전국 4개 권역 정책수요자 대상 순회콘서트를 기획하였다. 본 콘서트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육아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처음 하는 육아에 서투르고 힘든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담아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주제로 마련하였다. 전국에서 총 4차례로 진행된 육아콘서트는 4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서울지역 콘서트를 시작으로, 5월 17일 경상·부산, 5월 19일 경기·인천을 거쳐, 5월 31일 전라·광주지역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육아선진화 포럼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는 산·학·연 교류를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 아동·가족복지 관련 학회, 유아교육·보육 관련 단체, 공공기관, 아동 관련 단체 등 총33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기관, 지역사회, 가정 이 연계·협력하는 지원책을 논의하는 육아선진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2차에 걸쳐 진행된 육아선진화 포럼에서는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과 '한국의 출산·육아문화 진단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6. 6. 20(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발표: 최윤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행정학과) 문미옥 교수(서울여대 아동학과) 이종희 교수(동덕여대 아동학과) 윤희숙 연구위원(KDI)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왕형진 팀장(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시범사업 T/F팀) 학부모 2인, 보육교사 1인
제2차	2016. 12. 13(화) 외교센터 12층 THE MOST	한국의 출산·육아문화 진단과 쟁점	발표: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제경숙 교수(경남대 유아교육학과) 홍승아 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준 대표(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수완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국제세미나/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2016년 세 차례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차 국제세미나에서는 싱가포르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싱가포르와 한국의 유아교육 상황과 정책 이슈'에 대해 발표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는 이스라엘 홀론 시 부시장,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호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국제동향: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및 재정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차는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ECEC 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6. 5. 9(월) 연구소 대회의실	싱가포르 ECDA-KICCE 정책세미나 개최 - Early Childhood Landscape and Policy Issues in Singapore and Korea (싱가포르와 한국의 유아교육 상황 및 정책이슈)	발표: Sum Chee Wah, Wang Run, Joanna Liew(이상 ECDA 공무원), Dr. May See York Har 외 ECDA 관계자 14명,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김은설 아동연구패널팀장 및 연구소 연구직
제2차	2016. 9. 29(목)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	영유아 교육·보육의 국제동향: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및 재정지원 방향 모색	오전발표: Hana Hertsman(이스라엘 홀론 시 부시장), 고세진(KBS 교향악단 사장, 현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 오후발표: Keiichi OGAWA 교수(일본 코베대학), Mikiko Tabu 교수(일본 세이토쿠대학), 김나영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Simone Bloem 박사(독일 유소년연구소), Megan Blaxland 박사(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토론: 김진영 교수(건국대), 이채정 사업평가관(국회예산정책처), 이영옥 박사(한국개발연구원), 김창환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제3차	2016. 12. 6(화) 연구소 4층 대회의실	육아정책연구소-인도네시아 교육부 정책세미나 개최 Quality ECEC with Family and Community (가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CEC의 질)	발표: 우남희 소장,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실장 토론 및 질의응답: Mr. Suparjo, Mr. Agus Pranoto Basuki(이상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 서영숙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제1차 국제세미나



제2차 국제세미나



제3차 국제세미나



❖ 협동연구 공동 정책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유치원·어린이집 환경을 중심으로'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협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학제간의 토론을 위하여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2015년 '제1차 어린이 안전 포럼'(12. 18)에 이어 2016년에는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협동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

구분	일시/장소	주제 및 발표자	토론자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2016. 12. 15(목) 외교센터 3층	발표1: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김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발표2: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전영실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3: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최혜영 교수(창원대 가족복지학과) 안정은 장학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현선 교수(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김은정 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양진혁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류승표 국장(어린이집공제회)

❖ 제5차 CLFA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

2016년에는 한국가족관계학회, 아시아 가족기관협회(Consortium of Institutes on Family in the Asian Region)와 공동으로 「Asian Families: Change and Consistency」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여러 아시아 참여 국가들이 가족관계 변화와 추이에 대한 이론과 정책을 비교하고, 실천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세션에서는 'Parenting and Policies for Young Children in Korea' 주제로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도남희 기초연구·통계팀장, 이윤진 연구위원, 김길숙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은 Micy Lui(홍콩 특별행정구 사회복지 수석 담당관), Kinuyo Kurokawa 교수(일본 나루토교육대학교)이 참여하였다.



제5차 CLFA 국제 심포지엄

구분	일시/장소	주제	발표
제4차	2016. 11. 4(금) 국립중앙박물관	Parenting and Policies for Young Children in Korea	발표: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도남희 기초연구·통계팀장, 이윤진 연구위원, 김길숙 부연구위원 토론: Micy Lui(홍콩 특별행정구 사회복지 수석 담당관), Kinuyo Kurokawa 교수(일본 나루토교육대학교)

❖ 학술대회

제7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11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세션 1에서는 Kathy Sylva 교수의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reschool education on children's development: evidence from the English EPPSE study', Bernhard Kalicki 교수의 'Ongoing reforms of the German ECEC system: The role of longitudinal studies' 주제강연이 이루어졌다. 세션 2에서는 김나영 부연구위원의 'Factor Analysis of the Need for Childcare Leave Policies', 현대아산병원 홍수정 교수의 'Allergic Disease in Children from PSKC Study' 주제 발표가 있었다. 세션 3은 주제별로 학술논문 개별 연구자 발표로 이루어졌다.



제7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발표
제7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16. 11. 24(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Global Approach to Longitudinal Study on Child Development (아동발달의 종단적 접근과 국제적 흐름)	Kathy Sylva(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EPPSE Study 책임자), Bernhard Kalicki(독일 유소년 연구소 소장), 김나영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홍수정 교수(서울아산병원)

❖ 육아정책연구소 11주년 기념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월) 외교센터 더모스트에서 '육아정책연구소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우남희 소장의 개회사 및 2대 조복희 소장·3대 이영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기념식에는 이재연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소 전 직원이 참석하여 연구소의 창립 1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1년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과 함께 '10년 근속직원' 6인에 대한 포상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문가 간담회

국제 전문가 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25일(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교수 Nina Sajaniemi를 모시고 ‘핀란드의 ECEC 정책 및 아동의 웰빙(Well-being)’이라는 주제로 원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ina Sajaniemi 교수는 헬싱키 대학교의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소속으로 유치원 교원연구 및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다. 본 간담회에는 원내 연구원 및 장혜진 교수(대구대)가 참석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월 23일(화) 뉴질랜드 Wikato 대학교의 Margaret Carr 교수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소를 방문한 Margaret Carr 교수는 뉴질랜드의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Te Whāriki 개발자 4인 중 한 명으로 기본 역량(competence)을 바탕으로 한 영역의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소에서는 우남희 소장,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최윤경 국제연구OECD팀장, 박원순 부연구위원이 간담회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누리과정의 개발과 보급 과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양국의 교육 및 보육 현안을 공유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6. 1. 25(월) 연구소 대회의실	핀란드의 ECEC 정책 및 아동의 웰빙(Well-being)	발표: Nina Sajaniemi 교수(헬싱키 대학교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최윤경 전략기획센터장 및 원내 연구진, 장혜진 교수(대구대 유아교육과)
제2차	2016. 2. 23(화) 연구소 소장실	누리과정 개발 과 보급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 양국의 교육 및 보육 현안 공유	참석자: Margaret Carr 교수(뉴질랜드 Wikato 대학교), 우남희 소장,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최윤경 국제연구OECD팀장, 박원순 부연구위원



제1차 국제 전문가 간담회



제2차 국제 전문가 간담회

출산·육아문화 개선 전문가 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제 1-2차 출산·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하에 육아관련 전문가 및 유관 기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제1차에는 조복희 교수, 정미라 교수 및 8인의 유관기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제2차에는 손승영 교수, 송헌재 교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복지, 여성 분야 전문가 5인이 참석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6. 11. 21(월) 연구소 대회의실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참석자: 조복희(경희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정미라(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 및 8인의 유관기관 분야 전문가, 우남희 소장 외 원내 연구진
제2차	2016. 11. 28(월) 연구소 대회의실		참석자: 손승영(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및 경제, 사회복지, 여성 분야 전문가 5인, 우남희 소장 외 원내 연구진



제1차 출산육아 간담회



제2차 출산육아 간담회



업무 협약(MOU)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5일(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독일 유소년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 DJI, 소장: Bernhard Kalicki)와 상호발전과 활발한 국제 연구 및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1) 공동연구 추진 및 학회 추진, 2) 양 기관의 연구진 교류 및 양성, 3) OECD 네트워크 통한 지속적인 협업, 4) 공동연구 추진보고서 및 저널 출판 관련 상호 협력을 함께 추진하며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6년 12월 7일(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가정의 영유아 양육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네트워크와 자원활용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 인프라 구축에 공동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1) 영유아 담당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한글학교 교원의 교수능력 향상 위한 사업 지원, 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자문, 3) 기타 연구 및 사업 관련 상호 협력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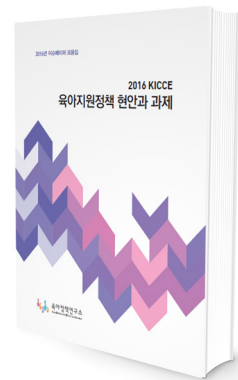


주요 간행물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정책적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Issue Paper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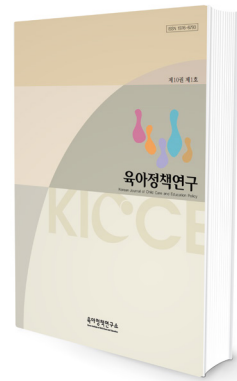
호수	분야	주제	필자
1	미래인적자원육성 연구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식생활교육 및 신체활동현황 및 문제점	김길숙 부연구위원
2		장애영유아교육·보육현안 및 요구:유보통합을중심으로	권미경 부연구위원
3		북한영유아지원사업현황과과제(2008~현재)	이윤진 연구위원
4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 질 제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5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및 인성 교육 개선 방안	김은설 연구위원
6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보조교사활용 실태 및 총원의 어려움	최효미 부연구위원
7		육아지원기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남희 부연구위원
8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의 성과와 개선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9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양미선 부연구위원
10		농어촌 유형에 따른 영유아 교육, 보육 개선 방안	김은설 연구위원



호수	분야	주제	필자
11	유아교육,보육 과정 성과 및 개선 연구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박창현 부연구위원
12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누리과정 개편 방안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13		창의·인성에 기반한 유치원교육과정평가와 개선방안	최은영 부연구위원
14	육아정책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2005-2014 유아교육 현황과 정책 과제	최은영 부연구위원
15		시계열 분석을 통한 유치원 교사 수요 예측	박진아 부연구위원
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최은영 부연구위원
17		지방정부 재정 지원 현황과 보육비용	양미선 부연구위원
18		어린이집 24시간 보육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양미선 부연구위원
19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 및 부모지원 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유해미 연구위원
20		조부모 영유아손자녀 양육지원 정책모색	이윤진 연구위원
21		산업단지 어린이집 내실화 방안	도남희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지로서, 연 3회 발간되고 있다. 취학전 영유아 대상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과 과제를 다루는 전문가 대상의 학술지이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0권 1호	2016.6.30.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문제 해결방안	김승희(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의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김길숙(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영은(동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희선(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구조 관계	김수정(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교실환경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차인영(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최미미(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영숙(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유아교사의 문제행동 중재 준비도와 교직원 관련 변인이 문제행동 유형별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제린(오레곤대학 박사과정) 히계형(충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실외놀이에서 자유선택을 위한 VPE프로그램 효과	양옥승(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0권 1호	2016.6.30.	애착유형에 따른 예비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인성문제간의 구조분석	조민규(경북대 아동학부 외래교수) 김춘경(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만 4세 유아의 미디어 사용과 ADHD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	김윤희(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강사) 신은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선명(덕성여대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한국 유아교육의 최근 동향과 정책 과제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유계숙(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양수진(경북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조선아(경북대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10권 2호	2016.9.30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 TV 시청 시간,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간의 구조적 관계	김수정(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허지영(아이클유치원 원감) 안지령(위덕대 유아교육과 교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이재무(단국대 초빙교수)
		육아지원기관 등원시각에 따른 만5세 유아의 일상생활 차이	박유정(부산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진욱(명지대 아동학과 교수)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의 쟁점 및 연계성 분석 연구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영아교사의 성인애착과 교사행동의 질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과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이경례(카톨릭대 아동학 박사) 문혁준(카톨릭대 아동학과 교수)
		유·초 연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최일선(경인교육대 유아교육과 부교수) 조운주(한국교통대 유아교육과 교수)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0권 3호	2016.12.31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길숙(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진화(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지연(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중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손수경(고려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유나(고려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노주성(고려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홍세희(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박진백(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재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첫 입소시점과 영향요인 검증: 콧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생존분석	이현정(고려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은수(고려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안혜영(한국통계진흥원 연구위원) 홍세희(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아동학대 피해 유아의 인지적 특성 연구	이수재(전북대 아동학과 시간강사)
		가구소득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과 부모 간 다집단 분석	손세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한창근(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만 5세반 보육교사의 유·초 연계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미해(명지대학 아동학과 박사과정) 김진옥(명지대학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은유(metaphor) 해석	나정(동국대학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조준오(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JCEP)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JCEP)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이며, 「IJCEP 홈페이지(<http://www.ijccep.com>)」에서 오픈액세스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다.



호수	발행일	논문제목	필자
10:1	2016. 1. 15	Conflictual and cooperative childcare politics in Canada	Rachel Langford(School of Early Childhood Studies, Faculty of Community Services, Ryerson University), Susan Prentice(University of Manitoba), Brooke Richardson(1.School of Early Childhood Studies, Faculty of Community Services, Ryerson University), Patrizia Albanese(1.School of Early Childhood Studies, Faculty of Community Services, Ryerson University)
10:2	2016. 8. 26	From 'Cinderella' to 'Beloved Princess': The Evolu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in China	Hui Li(1.Facul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Weipeng Yang(1.Facul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Jennifer J. Chen(1.Early Childhood & Family Studies, Kean University)
10:3	2016. 9. 7	Longitudinal research and early years policy development in the UK	Edward Melhuish(1.University of Oxford)
10:4	2016. 9. 17	Supporting family child care and quality improvement: findings from an exploratory survey of Illinois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y staff	Juliet Bromer(Herr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and Social Policy, Erikson Institute), Corinne Weaver(Catholic Charities Fort Worth)

호수	발행일	논문제목	필자
10:5	2016. 10.6	Policy transl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Growing Up in New Zealand approach	Amy L. Bird(1.Centre for Longitudinal Research-He Ara ki Mua, The University of Auckland), Polly E. Atatoa Carr(1.Centre for Longitudinal Research-He Ara ki Mua, The University of Auckland), Elaine Reese(1.Centre for Longitudinal Research-He Ara ki Mua, The University of Auckland), Susan M. B. Morton(Centre for Longitudinal Research-He Ara ki Mua, The University of Auckland)
10:6	2016. 10. 6	Use of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ies by policy makers	Lawrence J. Schweinhart(HighScope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USA)
10:7	2016. 10. 7	Analyzing early child development, influential conditions, and future impacts: prospects of a German newborn cohort study	Sabine Weinert(Department of Developmental Psychology, University of Bamberg), Anja Linberg(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versity of Bamberg), Manja Attig(1.Leibniz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Jan-David Freund(Department of Developmental Psychology, University of Bamberg), Tobias Linberg(Leibniz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10:8	2016. 11. 25	Learning areas for holistic education: kindergarten teachers' curriculum priorities,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and beliefs	Alfredo Bautista(1.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Education & Cognitive Development 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ew-Chin Ng(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Education & Cognitive Development 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David Múñez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Education & Cognitive Development 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Rebecca Bull(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Education & Cognitive Development 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0:9	2016. 12. 7	Methodological challenges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an early language education programme in Germany	Yvonne Anders(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Freie Universitat Berlin), Hans-Günther Rossbach(Leibniz-Ins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Wolfgang Tietze(Leibniz-Ins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은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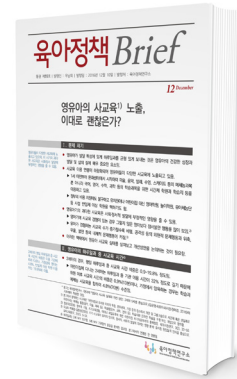
호수	발행일	구분	제목	필자
47호	2016.3.15	권두언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지원과 배려의 아이콘으로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와 개선안	김은설 연구위원
			장애 영유아 가족 중심 지원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과 방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족문화팀 팀장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최은영 부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48호	2016. 6. 15	권두언	아이의 또 하나의 거울, 영유아 교사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영유아교사 인성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김은설 연구위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교사 인성교육의 개선 방향	강은진 연구위원
		정책동향	유아인성교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실천 지원방안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창의·인성 교육에 기반한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	최은영 부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호수	발행일	구분	제목	필자
49호	2016. 9. 15	권두언	맞벌이 가구의 출산·육아 문화를 바꿔야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보육 실태 및 정책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과 과제	양미선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직장어린이집 정책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김수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핀란드의 육아정책 연혁과 동향	이운진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50호	2016. 12. 15	권두언	영유아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의 실제 체감도를 높여야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박진아 부연구위원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최효미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아이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부모교육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육아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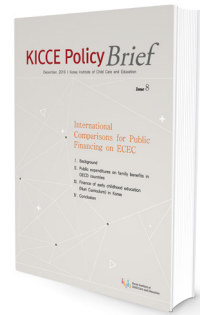
육아정책 Brief를 통하여 유아교육·보육과 관련하여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매월 1회 발간하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44호	2016.1.10.	영유아기 외국어 교육, 그 효과는?	이정림 연구위원
45호	2016.3.10.	'말기' 보육에서 '함께하는' 보육으로	권미경 부연구위원
46호	2016.4.10.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 강화되어야	윤재석 전문연구위원
47호	2016.4.29	아동학대, 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을 진단한다!	최은영 부연구위원
48호	2016.5.1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강은진 연구위원
49호	2016.6.10.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법 인식 높여야	김길숙 부연구위원
50호	2016.7.10.	육아지원정책의 출산율 제고 전략은?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경 연구위원
51호	2016.8.10.	보편적 보육지원의 3가지 패러독스와 그 해법은?	유해미 연구위원
52호	2016.9.10.	장애유아 초등 취학유예에 체계적 지원 필요	최효미 부연구위원
53호	2016.10.3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사후대처에서 예방으로	도남희 부연구위원
54호	2016.11.1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과제: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을 중심으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55호	2016.12.10.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	김은영 연구위원

KICCE Policy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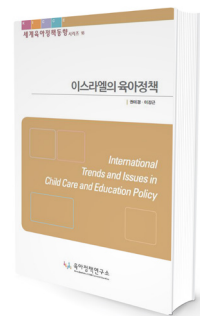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8호	2016.12.10	International Comparisons for Public Financing on ECEC	김나영부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세계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육아정책 연구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8	2016.11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권미경 부연구위원 이강근 히브리대 투루만평화연구소 연구원
19	2016.12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강은진 연구위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6
ANNUAL
REPORT**

IV

2017년 추진계획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중점연구사업
2017년 사업개요
2017년 연구사업 총괄표

2017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경영목표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창조적 육아정책선도
- 국내의 유일한 육아정책 Hub 연구소로 정착
- 소통과 공감의 육아정책개발
- 유연한 조직운영과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

연구사업 관련 국정과제

- 교육비 부담 경감
-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 건강한 가정 만들기
-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추진과제

- 장기적 육아정책 관련 기초연구 강화
- 협력적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전환적 패러다임 제시
-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및 실행을 위한 전략적 연구 강화
- 육아관련 정책정보의 Hub 역할 강화
- 미래지향적 육아정책연구의 확산과 협력 강화
- 국제적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와 대외협력 강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육아지원정책 연구 강화
- 정책고객과 정책현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개발 체계 구축
- 국민친화적 육아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및 환류 체계 강화
- 육아정책 전문성과 다학제적 연구역량 강화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
- 협력연구 활동 강화와 공동체적 조직문화 조성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1.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 부합성.
2. 건강한 가정 만들기, 아동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국가 정책 기여도
3. 육아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성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2018~2022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장기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실행해오고 있으나, 기존과 달리 유보통합을 고려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필요성이 증대됨. · 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은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 주관으로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넘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공유, 더 나아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규명에 주력 중임. ·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사회에의 이행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선도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패러다임의 창출과 비전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추진 정책의 성과와 효과 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 실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주요 정책의 이력(예: 누리과정 시행, 유보통합, 인성교육, 맞춤보육 등)과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전략, 소요 예산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모니터링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다부처 추진 영유아기 부모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운영 현황, 요구 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부부처 주도 부모교육사업 강화 및 이용 증대에 따른 성과 분석과 사업 체계화의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의 행복권 보장 요구 증대에 따라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증가 - 이에 따라 부처 주도의 부모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지속·확대되었으며,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 등이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연계되어 향후 정부 주도 부모교육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임. · 부모교육 사업 규모 확대와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효율화 문제가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관이 소관 부처에 따라 다양함에 따라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부모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성과관리 등이 요구됨. ·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용의 종합적 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체계화 등 내실화 방안을 모색함.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p>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I): 통합평가지표 적용을 고려한 어린이집 컨설팅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과 공적 투자 강화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질 관리 및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2008년부터 유치원 평가 제도, 어린이집은 2006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 유보통합 추진으로 통합평가 운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체계가 '통합평가'사업으로 구축되어 매뉴얼 개발과 시범사업 실시가 완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기초한 컨설팅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고 5차년도 과제로 기획된 본 연구는 2차년도부터 통합평가에 준한 컨설팅 모형개발과 적용 방안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2017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평가체제로 첫 적용하는 통합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로의 컨설팅 모형 개발과 운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p>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I):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이후 취학전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과 이용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육·교육기관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는 성장의 급등기로서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 시기의 식습관 형성과 영양 섭취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부분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생적이며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2개 년도에 걸쳐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실태와 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3차년도에는 기관의 건강·위생 환경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의 안전관리를 통해 실내·외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여 발달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함. - 인적 환경의 안전관리를 통해 기관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도록 함. -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기관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함.

2017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2018~2022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 정책 추진 현황(예: 누리과정 시행, 유보통합, 인성교육 등)과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전략, 소요 예산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들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2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영유아기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다부처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기 부모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운영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여 부모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및 국외 영유아 학부모들 간의 양육, 교육, 자녀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실제 영유아들의 하루 일과 및 사교육 실태 비교를 통해 남보다 일찍, 그리고 더 많이 교육시키려는 원인을 각 국의 사회맥락 속에서 분석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V)
	육아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물가지수의 지속적 산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육아물가지수준의 관리를 통한 정부 재정의 안정화 도모 및 보다 실질적인 육아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관리 체계 수립에 기여
5	영아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영아반 운영 현황, 담당교사의 애로 및 요구 등을 검토하여 0~2세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담당교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6	초등 자녀 양육지원 방안
	다양한 관계 부처에서 운영·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 대상 돌봄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보완점 또한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함. 돌봄 서비스 대상인 초등학교 진입 시기의 기초적인 아동의 발달 특성과 돌봄 개입 지점, 초등학교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자녀 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여 돌봄 정책의 보완점,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7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아동 놀이 및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과 그 가정의 요구를 담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양질의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8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출산을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저출산 대응정책 중 자녀 양육기의 자녀 돌봄 분야의 시책들과 정책 수요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의 부합 정도를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주요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2017년 사업개요

번호	과제명
	개요
9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기본법 제정안 마련하고자 함.
10	한국 어린이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임신 전부터 출생 후 성인기까지의 건강한 신체·정신적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제반 유전 및 환경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대규모 성장발달 코호트 구축을 위한 장기 사업 모형을 기획하고, 관련 조사 변인 척도의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 성장발달 코호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상 모집 방안 및 관련 조사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코호트 구축 준비 단계부터 최종 추적시기까지의 단계별 전략 목표를 구체화하여 장기 코호트 사업의 토대를 형성함. 한국아동패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의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포함하고, 다태아 가정 등을 포함하여 한국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을 추적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기획함.
11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 연구: 1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1세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지원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영아기 가정 내 양육환경의 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12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연구
	창의성 증진을 위해 학교환경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 발달 수준과 학교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3	수시연구사업
	정부정책 수립, 국내외 동향분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2)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관련 학술정보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번호	과제명
	개요
3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4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함.

3)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행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3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2017년 사업개요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3-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3-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의 5차년도 세부 4개 연구(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의 내실화 방안, 누리과정 성과 제고를 위한 교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개정(안) 개발 연구, 누리과정 평가와 향후과제)를 통해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향후 전망, 개선점을 도출하고,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및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2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V)
	2013년부터 시행된 영유아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써, 2017년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을 산출할 뿐 아니라, 이전에 수행된 4개년도 연구의 내용을 총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3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연속과제의 마지막 차수 연구로써 2016년 완료 예정인 유보통합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의 산출모형, 산출방식 등을 비교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표준유아교육·보육비의 통합 모형을 개발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한 표준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자 함.
4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한부모가족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목표로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 중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하고자 함.
5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I):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유아기의 건강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유아기 신체 건강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부모 및 정책 실무자의 유아기 건강 정책에 대한 인식, 문제점 및 요구 분석을 통해 유아기의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I): 통합평가지표 적용을 고려한 어린이집 컨설팅 연구
	어린이집 평가에 기초한 컨설팅 지원 연구 중 2차년도 연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평가체계로 첫 적용하는 통합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의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그 운용방안을 도출함.
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정책 만족도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주요 정책현안 발생 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5년간의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에 따른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및 인식과 체감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요자 체감과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번호	과제명
	개요
8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I):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방안
	2개 년도에 걸쳐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실태와 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3차년도에는 기관의 건강·위생 환경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함.
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한국아동패널 II)
	빅데이터의 축적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치고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 및 학교에서의 형식·비형식 교육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또한 그 자료를 축적하여 출산,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과 아동 발달에 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계 연구의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10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웹방화벽 및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을 통하여 정보보안 강화
11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2017년 연구사업 총괄표

기분

번호	연구과제명
1	2018~2022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3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V)
5	영아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6	초등 자녀 양육지원 방안
7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8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9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 확보 방안
10	한국 어린이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11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 연구: 1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12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연구

일반

번호	연구과제명
1	'3-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1-1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의 내실화 방안
1-2	누리과정 성과 제고를 위한 교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개정(안) 개발 연구
1-4	누리과정 평가와 향후과제
2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V)
3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4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5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I):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I): 통합평가지표 적용을 고려한 어린이집 컨설팅 연구
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8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I):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
9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한국아동패널 II)

2016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 Annual Report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730 3313
www.kicce.re.kr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 786 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Tel. 02 398 7700 Fax. 02 730 3313 www.kicce.re.kr